



제2937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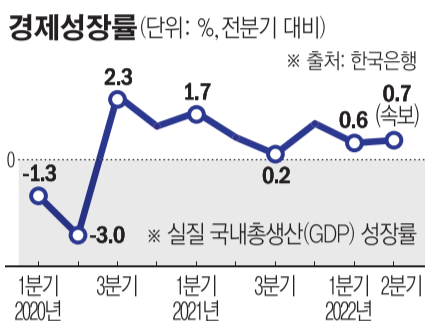
尹 “기업활동 옥죄는 형벌 개선하라” 4 KDI “취약층 위해 법정 최고금리 올려야” 8

코스피(26일) 2412.96(+9.27P) 코스닥 789.93(+0.24P)

환율(달러당 원화) 1307.60(-6.10원) 금리(국고채 3년물) 3.121%(-0.032%p)

2분기 수출·투자 ‘뒷걸음’ IMF, 韓성장률 하향 조정

韓銀 성장률 속보치 발표
2분기 0.7% 성장, 예상 넘어
수출 부진에도 민간소비 선방
경기침체 등에 성장세 꺾일수도
IMF 0.2%p 낮춰 2.3% 제시



올해 2분기 한국경제가 전 분기 대비 0.7% 성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민간소비가 늘면서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다만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수출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하반기 경제성장 전망을 어둡게 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기구도 줄줄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반면 순수출(수출-수입) 기여도는 -1.1%p로 마이너스 전환되는 등 전 분기(1.7%p)보다 큰 폭 낮아졌다. 민간소비가 성장률을 올렸으나, 수출이 증가율을 끌어내렸단 얘기다.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이 전 분기 대비 0.7%로 집계됐다고 26일 발표했다. 8분기 연속 성장세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2.9% 성장했다. 금융시장이 전망했던 0.3~0.4%를 웃도는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4분기(1.3%)와 비교하면 0.6%포인트(p) 떨어졌다.

우리 경제가 수출 부진에도 민간소비 덕분에 2분기 선방했지만, 코로나19로 재확산과 세계경기 침체 등으로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분기별 성장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1분기(-1.3%), 2분기(-3.2%)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 같은 해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8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IMF는 ‘세계경제전망’ 수정 발표를 통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월 전망(2.5%) 대비 0.2%p 낮춘 2.3%로 제시했다.

2분기 성장률은 수출 부진 속에서 민간소비가 이끌었다. 2분기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민간소비의 성장률 기여도는 1.4%p로 전 분기(-0.2%p)보다 크게 뛰

었다. IMF는 ‘세계경제전망’ 수정 발표를 통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월 전망(2.5%) 대비 0.2%p 낮춘 2.3%로 제시했다.

백악관 “SK, 美에 29조원 추가 투자”

최태원, 바이든과 화상 면담
美, 일자리 창출 등 강조할 듯



최태원 SK 회장 조 바이든 美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화상 면담을 한다고 백악관이 발표했다.

부의 제조업 성장, 새로운 고임금 일자리 창출, 기후 위기에 대응할 기술 개발, 인기 투자처로서 미국의 장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미국에 220억 달러(28조80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투자를 공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발표 내용에 고임금 일자리 창출이 포함된 것을 보면 최 회장은 이번 면담 자리에서 미국 내에 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의 투자 전략을 밝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 따르면 SK그룹은 기존 70억 달러(9조1000억 원) 미국 투자 계획을 포함, 총 290억 달러(37조9000억 원)를 투자하게 된다.

현재 최 회장은 미국 출장 중으로, SK그룹은 최 회장의 방미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해왔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화상 면담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우리 시간으로 27일 새벽에 치러질 면담에서 28조8000억 원의 투자 이외에 SK의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수 기자 citizen@

구체적인 투자 분야나 규모, 시기 등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화상 회의에서는 ‘지나 러ndon’ 미국 상무부 장관도 배석한다.

백악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바이든 행정



서울 한복판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이 10년만에 다시 추진된다. 오세훈 시장은 26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정비창 일대 약 50만㎡ 부지에 초고층 빌딩, 녹지, GTX-UAM 연계 교통망 복합개발 등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구상’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의 모습.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용산정비창에 12兆 투입, 亞 실리콘밸리 조성

개발 무산된 이후 10년째 방치
국제업무지구로...2년 내 첫삽
주택 공급규모 6000가구 예정

용산정비창 일대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구역



서울시가 용산 철도정비창(용산정비창) 일대 50만㎡ 개발 청사진을 26일 공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곳에 아시아판 실리콘밸리를 목표로 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사업구역을 만들겠다고 했다. 2024년 하반기 기반시설 착공, 2025년 앵커부지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지역은 기존 용산정비창 부지에 용산변전소와 용산역 후면부지, 선로 부지 등이다. 2010년 개발계획에 포함됐던 서부이촌동 일대는 제외됐다.

시는 이날 오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용산정비창은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대로 51만 2138㎡ 규모로 서울 한복판에 남은 금싸라기 땅이다. 2007년부터 개발 사업이 꾸준히 논의된 곳이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정권 교체 등으로 부침을 겪으면서 빈 땅으로 남았다. 2013년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최종 무산된 이후 10년째 방치됐다.

용산정비창 개발 지역 내 주택 공급 규모는 약 6000가구 규모가 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국토교통부와 여러 차례 협의하느라 발표가 늦었는데 6000가구 규모를 배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전체 공사비는 미정이다. 다만, 시는 민간 투자를 전제로 하면 공공에서 투입되는 비용은 12조 원으로 전망했다. 오 시장은 “비용이 얼마나 사용될지는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알 수 있다”며 “경부선 지하화 사업 등이 공사 비용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사업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코레일이 ‘공동사업시행자’(코레일 70%, SH공사 30%)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과거 용산정비창 개발은 민간 프로젝트금융사(PFV) 주도 개발 방식을 추진했지만, 당시 외부 경제 상황 변화 등의 위험으로 좌초된 바 있다.

시는 이번 오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용산정비창은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대로 51만 2138㎡ 규모로 서울 한복판에 남은 금싸라기 땅이다. 2007년부터 개발 사업이 꾸준히 논의된 곳이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정권 교체 등으로 부침을 겪으면서 빈 땅으로 남았다. 2013년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최종 무산된 이후 10년째 방치됐다.

오 시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는 등 이번 사업에 좀 더 가속도가 붙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기 위해 차질 없이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 바뀌니 달라져”
尹, 권성동과 주고받은 문자 공개 파장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98회 임시회 6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 도중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문자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대표에 불편한 감정 표출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는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26일 포착됐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국회 사진기자단은 이날 오후 4시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휴대전화에서 윤 대통령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장면을 촬영했다.

‘대통령 윤석열’로 표시된 발신자는 “우리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권 대표 대행은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이 대표에 대해 공개적인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문자로 윤 대통령의 이 대표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난희 기자 nancho0907@

<10년 전 대비>

OECD 기대수명 1.2년 늘 때, 한국 3.3년 증가

복지부 'OECD 보건통계'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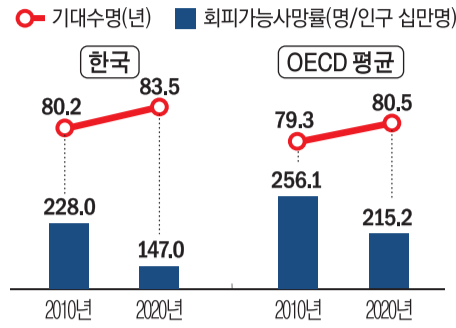
병원이용 최고·비만을 日 이어 최저 의료장비 물적자원 평균比 높지만 인력은 1000명당 2.5명 '태부족'

우리나라 국민의 2020년 기대수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년 긴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인력은 물적자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OECD 보건통계 2022로 보는 우리나라 보건으로 현황'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OECD가 4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2'를 토대로 한국과 OECD 회원국들의 주요 지표들을 비교·분석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20년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OECD 평균(80.5년)보다 3년 길었다. OECD 회원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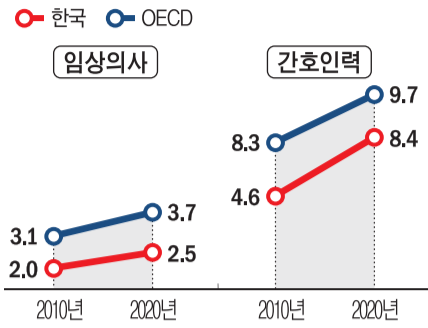
기대수명 및 회피가능사망률



들의 기대수명은 2019년 81.0세에서 2020년 80.5세로 0.5세 짧아진 데 반해, 한국은 83.3세에서 83.5세로 0.2세 늘어났다. 한국은 예방가능사망률에 치료가능사망률을 더한 회피가능사망률도 인구 10만 명당 147.0명(2019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인 215.2명보다 68.2명 낮았다.

건강지표도 양호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15.9%)과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7.9l)은 OECD 평균과 유사했으나,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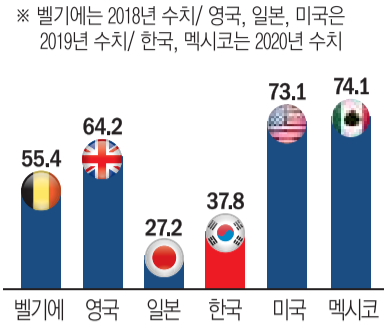
임상의사 및 간호인력(단위: 명/인구 천명)



과체중·비만인구비율(15세 이상)은 37.8%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낮았다. 평균치(58.7%)에 비해선 20.9%포인트(P) 낮았다.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컴퓨터단층촬영(CT), 병상 등 물적자원도 OECD 평균을 웃돌았다. OECD 평균 대비 인구 1000명당 MRI 장비는 86.9%, 병상은 195.3% 많았다.

반면, 의료자원은 OECD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한의사를 포함한 임상의사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율(단위: %)



(3.7명)보다 48%, 간호인력은 8.4명으로 OECD 평균(9.7명)보다 14.3% 적었다. 이 밖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회원국 평균치(5.9회) 대비로는 149.2% 높았다. 경상의료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8.4%로 증가세가 가팔랐다. 구매력평가환율(PPP) 기준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도 760.9달러로, OECD 평균인 547.2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이제 열차도 자율주행” 韓 세계 첫 T2T 개발

철도연구, 열차 간 통신기술 구현

자율주행 열차시대가 가까워졌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은 자동차와 주변의 모든 사물을 연결하는 차량·사물통신(V2X: Vehicle to Everything) 기술을 열차 자율주행 시스템에 적용한 'T2T 열차 간 통신 기술(Train-To-Train)' 개발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열차 자율주행시스템은 열차와 열차가 직접 통신해 스스로 주행 안전을 확보하고, 운행 상황을 실시간 인지·판단·제어하는 지능형 열차 제어 기술이 적용됐다. T2T 열차 간 통신기술은 사고 정보 등 주변의 교통상황과 교통의 흐름을 분석해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돕는다. 철도연은 이 기술을 열차 자율주행 시스템 실현 환경에 맞게 개발했다.

철도연은 T2T 통신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일정한 진로와 곡률 변경이 큰 선로를 주행하는 철도교통의 특성을 고려, 지향성 안테나를 개발했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와는 달리 철도는 열차 길이가 길고, 운행속도가 빠르다. 따라서 신뢰성이 높은 통신기술이 필요하다. 원하는 방향으로 전파를 더 멀리 보내는 특성이 있는 지향성 안테나 개발을 통해 열차 간 통신 거리를 증가시킨 것이다.

철도연은 충북 오송의 철도종합시험선로에서 지향성 안테나와 기존 전방향성 안테나를 탑재한 2대의 축소 시험차량을 4km 이상 간격으로 주행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주행 중 열차와 열차 간 통신시험은 세계 최초로, 철도연은 철도운행에 필요한 데이터 송수신에 성공했다. 터널에서의 정지, 주행 중 차량 간 통신 성능과 각 차량 통신 시스템의 통신 가능 구역을 측정, 지향성 안테나를 통해 도로환경과 유사한 차량·사물통신 기술을 철도 환경에도 완벽하게 적용한 것이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신규 확진자 10만명 육박... 위중증·사망자 급증

감염재생산지수 2주째 1.5 상회 하위변위 확산에 재감염도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신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중증화뿐 아니라 합병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만932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4월 20일(11만1291명) 이후 97일 만에 최다다. 신규 사망자는 17명으로 전날과 같았으나, 재원 중 위중·중증환자는 168명으로

하루 새 22명 늘었다. 주간 지표도 악화세가 뚜렷하다. 7월 3주차(16~23일) 코로나19 주간 확진자는 전주보다 84.7% 증가했다. 유행 확산 정도를 보여주는 감염재생산지수(Rt)는 1.54로 전주(1.58)에 이어 2주째 1.5를 넘어섰고, 전주 대비 신규 위중·중증환자는 102.8%, 사망자는 22.1% 각각 증가했다.

오미크론 하위변위인 BA.5는 우세종 전환을 앞두고 있다. 7월 3주차 국내감염 사례 중 BA.5 검출률은 49.1%로 전주보다 1.9%포인트(P) 확대됐다. 해외유입에서 검출률은 73.3%다. 재감염도 늘고 있다.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전주 2.88%에서 3.72%로 올랐다.

'자율적 거리두기'로 표현되는 현행 방역체계에는 변동이 없다. 백경란 질병청장

은 "여러 분석자료에서 현재의 유행상황이나 오미크론의 전파력을 봤을 때 시간이나 인원 제한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유행상황을 통제하는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평가 결과가 있다"며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본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회의에서 '자율적인 거리두기 실천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신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3차 집중자의 중증화율이 미접종자 대비 95.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미접종군 대비 2차 집중자의 코로나19 감염 후 급성심근경색, 허혈성뇌경색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52~6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7일만에 10만명을 넘어선 26일 서울 송파구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여성 라이프스타일의 모든 것

보다 선명하게! 실감나게! 이제는 UHD로 본다

단골 되고 싶은 맛있는 TV!

듣는 즐거움에 품격을 더하다

활력 라이프의 시작, 생활 스포츠의 모든 것

볼수록 빠져드는 구기 스포츠 전문 채널

베리미디어는 급변하는 미디어 세상을 선도합니다

미디어환경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하여
최상의 즐거움과 신선한 콘텐츠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하는 기업

“용적률 1500% 이상”... 용산에 롯데타워급 빌딩 들어선다

정비창 개발 10년만에 재추진

용산국제업무지구(이하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목표로 △융복합 국제도시 △녹지생태도시 △입체교통도시 △스마트도시 등 4대 개념을 주축으로 개발된다.

서울시가 26일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에 따르면, 용산 철도정비창(용산정비창) 일대는 초고층 빌딩과 넓은 녹지로 조성되며 해외 기술기업들이 대거 입주한다. 일자리부터 주거, 여가, 문화생활까지 도시의 모든 기능이 한꺼번에 이뤄지는 ‘직장·주거 혼합’ 도시로 조성된다. 외국 기업과 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한 국제교육시설, 병원 등 외국인 생활인프라도 들어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경쟁 도시로 싱가포르가 거론되는데 그 나라에는 여가 문화를 즐길 공간이 있다”며 “서울 역시 여가와 문화 우수 환경을 구축해 24시간 즐기면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직주혼합 융복합 국제도시 조성을 위해 용산정비창 부지를 여러 획지로 나누

일자리·주거·여가·문화 ‘직주 혼합’ 대규모 도심공원 ‘녹지생태’ 조성 UAM·도로·철도 ‘입체교통’ 요지 자율주행 등 ICT 기반 ‘스마트도시’ 오세훈 시장 “도시 경쟁력 높일 것”

고 모든 획지는 업무와 주거, 상업 등 다양한 기능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용도 복합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에서 선보인 ‘비온드 조닝’ 개념을 전면 적용하는 첫 사례다.

초고층 빌딩 건설을 위한 용적률 상한 제한도 해제했다. 시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0%를 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유사한 뉴욕 허드슨야드의 경우 최대 용적률을 3300%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평균 용적률은 1800% 이상이다. 오 시장은 “건물은 매우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디자인 구현을 위해 국제 설계 공모를 시행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공원과 건물 내 녹지 등을 포함해 50% 이상의 녹지율을 확보한다. 업무지구에서 용산공원, 한강으로 뻗어 나가는 방사형 녹지체계가 구축된다. 업무지구 중앙과 철도 부지에 각각 대규모 중앙공원, 선형공원이 마련된다.

입체교통도시 구축을 위해 업무지구 지

하에는 차량 중심의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용산이 도심과 강남뿐 아니라 공항, 수도권 전역 그리고 전국으로 연결되는 교통거점으로 거듭난다.

용산역 인근에는 미래항공교통(UAM),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지하철, 도로 교통 간 쉽고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승 거점인 1호 ‘모빌리티 허

브’가 들어선다. UAM은 2025년 기체 상용화에 맞춰 김포공항-용산국제업무지구 시범노선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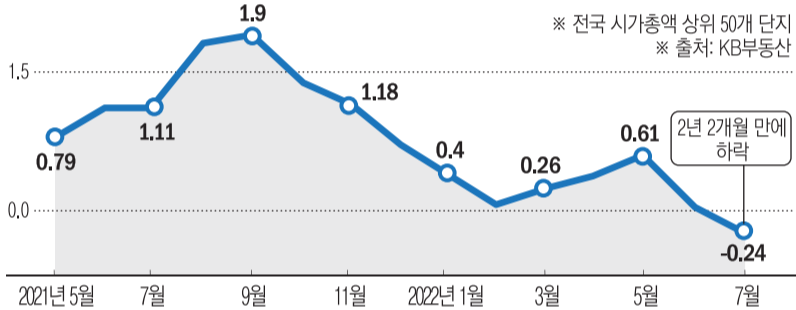
오 시장은 “상업용 드론택시는 2025년쯤 운영할 수 있다”며 “미래도시계획에서 항공교통을 빼놓고 도시계획을 얘기하기 어렵고, 대통령실 경호문제와 관련해선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논의해 (문제가 없음을) 두 번, 세 번 확인 받았다”고 말했다.

스마트 도시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스마트 물류 등 ICT 기반의 미래 도시 인프라를 도시 전역에 구축한다. 도로에는 ITS(지능형 교통시스템), V2X(자율주행 통신시스템) 등 자율주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택에는 IoT(사물인터넷) 기반 관리시스템을 탑재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은 용산정비창이 자리한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대 약 50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13년 최종 무산되면서 10년째 빈 땅으로 남았다. 사업구역은 용산정비창 및 선로 부지, 용산 변전소와 용산역 후면 부지 등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김상영 수습기자 ksy2291@

KB 선도아파트 50지수 월별 증감률 (단위: %, 전월 대비 기준)



대장주 아파트값도 꺾였다 2년 2개월 만에 하락 전환

전국 시총상위 아파트 50곳 ‘KB선도50지수’ 0.24P 하락 “금리 공포, 하반기도 약세장”

주변 아파트값을 선도하며 ‘뽕뽕한 채’로 불리는 전국 대장주 아파트들의 몸값이 2년 2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26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7월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101.18로 전월(101.42) 대비 0.24포인트 하락했다. 선도 50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한 것은 2020년 5월(-0.64포인트)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2020년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연속 내림세가 이어졌다. 여기에 경기 침체와 법인 거래 자금조달계획 의무,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규제가 쏟아지면서 시장 침체가 심화했다.

선도 50지수는 전국아파트 단지 중에서 시가총액(총가구 수와 매매가격을 곱한 것) 상위 50개 단지를 매년 선정해 시가총액 변동률을 지수화한 것이다. 가격 변동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어 주택시장 선행지표로 주로 활용된다.

선도 50지수에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송파구 ‘헬리오시티’, 경기 과천시 ‘래미안슈르’, 성남시 ‘산성역포레스티아’, 수원시 ‘광고중흥S-

클래스’, 부산 해운대구 ‘다샵센텀파크1차’, 수영구 ‘삼익비치’ 등 주요 신축 및 재건축 단지들이 포함돼 있다.

선도 50지수는 5월 새 정부 출범과 규제 완화 기대감에 연중 최고 상승률인 0.61% 상승했으나, 금리 인상 본격화에 6월 상승 폭이 10분의 1 수준인 0.06%까지 축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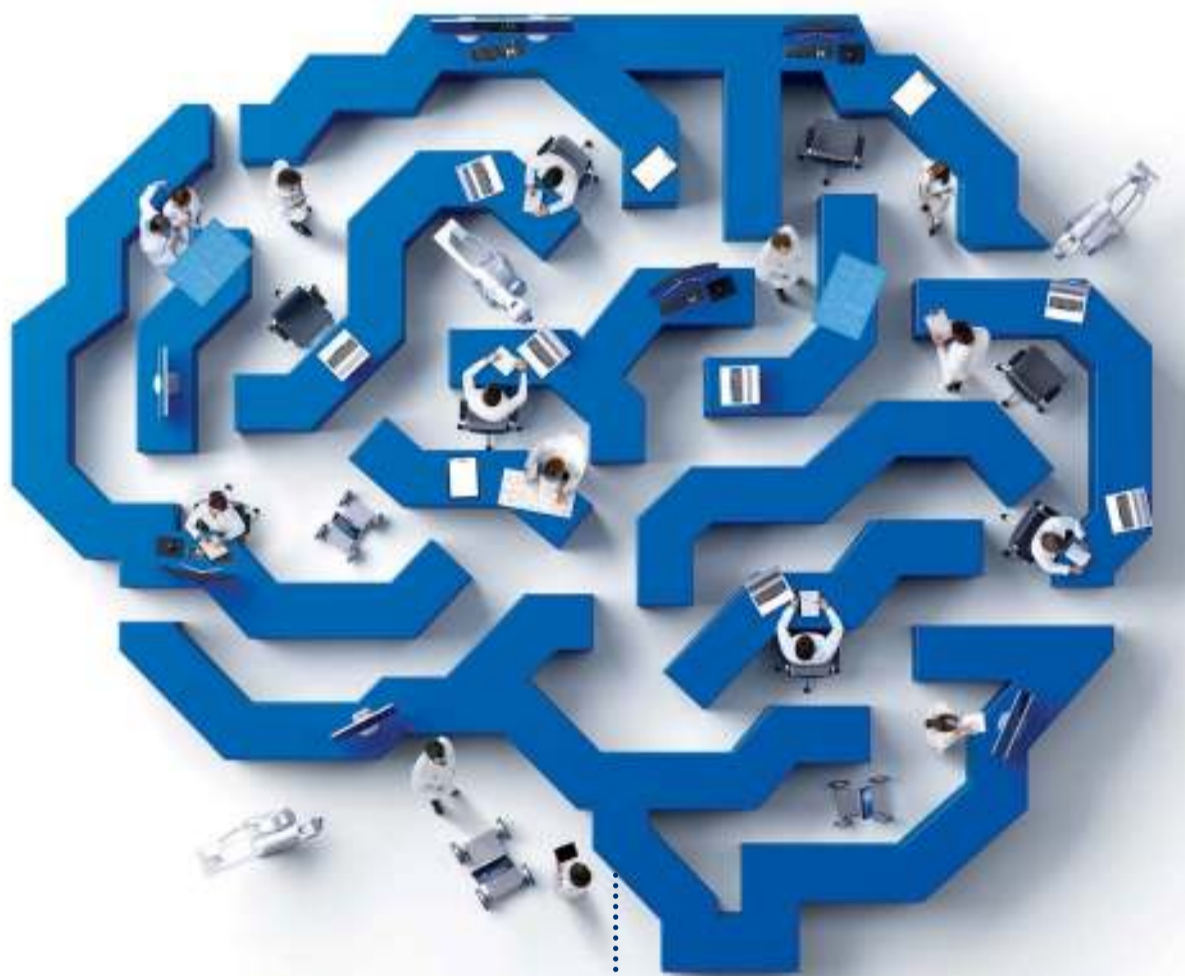
업계에서는 금리 인상 공포가 부동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5월 22년 만에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고, 지난달에는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스텝’까지 밟았다. 한국은행도 이달 역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했다.

주택시장 내림세가 본격화하면서 당장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긴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7주째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주 하락세로 돌아선 강남구에 이어 용산구도 4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아파트값 역시 하향 안정되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최근 매물을 내놔도 거래가 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인데 보유세 완화의 정책적 시그널이 나와 주택시장은 더욱 답보 상태를 이어갈 것”이라며 “거래 관망세와 주택 거래 감소가 이어지는 약세장이 하반기에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toto@

HYUNDAI MOBIS Innovation for Humanity, Mobility for Tomorrow



모빌리티가 육체라면 소프트웨어는 정신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尹 “국가기강 문란” 경고에도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맞불’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시행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시행령안은 8월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행안부는 경찰대 개혁안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 목적을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정외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안부장관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날이 중요해지는 국내 치안 기관인 경찰청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안부 장관은 조직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관련 행정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잘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국 신설안이 통과되자, 경찰은 더 거세게 반발했다. 경찰은 오는 30일 예정된 경감·경위급 현장담장회의를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해 열기로 했다. 경찰 지휘부가 각 시도경찰청에 사실상 ‘집단행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하달한 상태인 만큼 이날 전체 경찰회의는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정부-경찰, 갈등 최고조

경찰 지휘부 “집단행위 말라” 경고했지만 30일 경감·경위급 회의 확대 개최 예고 행안부, 경찰대 개혁안 조만간 내놓을 듯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감인 경찰서장들의 집단행동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전날 이 장관(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표현은 그런 국민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며 “국방과 치안은 국가의 기본 사무이고 그 최종적 지휘감독자는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전국 경찰서장 190여명은 23일 회의를 열고 해당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안에 국민, 전문가, 현장 경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고 했다.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업무보고 뒤 “자신의 평가나 공개적인 경쟁에 의하지 않고 특정 대학(경찰대)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7급이라는 공무원에 자동으로 보임될 수 있다는 게 요즘 말하는 불공정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은 “신설된 경찰국에서 인사와 경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검찰청 수사기능 확대·복원 ‘文 검찰개혁’ 이전으로 회귀

법무부 ‘5대 핵심추진 과제’

강력부 부활·직제 정비 등 檢 권한 강화 합수단 활용 ‘검수완박’ 법안 시행 대응 공수처 우선적 수사권 폐지 국회서 논의

법무부가 과거 폐지된 강력부를 되살리고 ‘공수처법 24조’를 삭제하는 등 검찰 수사기능 복원에 나선다. 검찰을 전 정부 ‘검찰개혁’ 이전 모습으로 최대한 되돌리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5대 핵심 추진 과제 등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와 정보활동 등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직접수사를 제한한 검찰청의 직제를 정비하고 형사부 분장 사무를 복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 정부에서 폐지된 검찰청의 강력부와 외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복원한다.

최근 법무부는 직제개편을 통해 각 형사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직접수사를 가능하도록 바꾼 바 있다. 지난 정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줄이기 위해 직제를 개편했는데,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이를 폐지한 것이다. 줄어든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기 위해 ‘합동수사단(합수단)’도 적극 활용한다. 9월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이 시행되며 검찰의 수사 범위와 대상은 줄어들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검

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합동수사단 등을 설치하고 기관 간 협력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증권과 공정거래, 조세 분야 등에 대한 경제 범죄 수사에도 집중한다. 한 장관은 5월 취임 직후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을 부활시켰다. 이 역시 추 전 장관이 2020년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한 것이다. 전 정부는 합수단을 ‘불법 수사’, ‘부패의 온상’으로 규정했지만, 한 장관은 이를 다시 살려냈다.

법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 강화, 공정거래 수사조직 정비 등의 방법으로 검찰의 공정거래 사범 수사 역량을 키우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세범죄합수단’도 신설해 조세·관세포탈과 역외 탈세, 해외불법재산 형성 등 탈세범죄를 수사한다. 서울북부지검은 조세범죄중점청이다. 조세범죄 합수단이 생긴다면 조세범죄중점청인 서울북부지검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정립하게 될 지도 주요 관심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도 추진한다. 이는 공수처법 24조(다른 수사 기관과의 관계)에 명시된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보다 공수처가 우선권을 갖도록 규정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공수처법 24조 1항(이첩요구권) 폐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조항을 폐지하면 검찰도 고위 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공수처법 24조 1항과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폐지 등 국회 법률 개정 사안이다.

이수진 기자 abc123@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 등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 대통령실

‘경찰국 신설 시행령’ 위법성·졸속 논란

상임위, 대통령령의 법률 위반 여부 검토 상위 법령엔 행안부 장관 사무 ‘치안’ 없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당분간 ‘위법성’, ‘졸속 추진’ 등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공식 취지는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안부장관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야권에선 대통령령인 경찰국 신설 관련 직제안의 적법성부터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회법 제98조 2항에 따라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점을 지적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항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해당 대통령령이 법률의 취지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검토 경과 등을 보고서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해 본회의 의결로 정부에 보낼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이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상위 법령인 정부조직법 및 경찰법에는 행안부장관의 사무 범위에 ‘치안’이 명시되지 않아 시행령 자체가 위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시행령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판도 거세다. 행안부가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대폭 단축해 경찰국 설치를 졸속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많은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경찰국 신설 관련 시행령을 의결, 공포한 것은 4일간의 초단기 입법예고 기간에 이어 요식행위로 점철된 시행령 개정 의결”이라며 “상위법 근거도 없는 위법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내부의 이견은 탱크로 짓밟듯 몽개버리고 한 치의 이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고 했다.

행안부는 졸속여부, 적법성 논란 모두 부인하고 있다. 행안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일반적인 법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직제안(대통령령)은 통상적으로 5일 내외로 운영하고 있다”며 “국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유미 기자 jscs508@

尹 “기업활동 옥죄는 과도한 형벌 개선하라”

법무부, 이주·이민정책 컨트롤 타워 신설 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확립 등 업무보고

법무부는 ‘글로벌 스탠더드’, ‘인권보호’ 등을 골자로 한 핵심 과제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 살리는 정책에 두라”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26일 △미래 변형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을 주요 과제로 보고했다.

법무부는 ‘민법’, ‘상법’을 국제 표준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 전자주주총회 도입, 법무부 내 국제법무업무부서 통합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법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고 비자 정책을 통한 국가 성장 지원 등도 추진한다. 형사사법 전 사회와 변호사시험 CBT 방식 도입 등 첨단 IT 법률

서비스도 제공한다.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을 확립할 방침이다. △범죄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 △법률구조 통합 AI 플랫폼 구축 △치유 전문 상담사 확대, 온라인 심리치유 프로그램 도입 등 강력범죄 피해자 치유지원 강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증거보전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한다. 전 자감독제 운영,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추진, 범죄 예방 환경개선사업 통합관리 등 과제도 진행했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자 정책을 유연화하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를 통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을 개선하라”고 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인권보호 행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개선과 교정 공무원 처우개선을 병행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엄중 대응체계를 구축해 달라. 이와 관련해 검경 간 효율적인 체계를 신속히 완성하라”며 “국세청과 관세청, 금감원,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정수현 기자 int1000@

코로나 재확산·中 봉쇄... '소비·수출' 하반기엔 더 암울

2분기 성장률 0.7%

성장 받던 수출 3.1% 감소
대의 의존도 높아 개선 미지수
코로나 재확산 민간소비 악영향
연 2.7% 성장 쉽지 않을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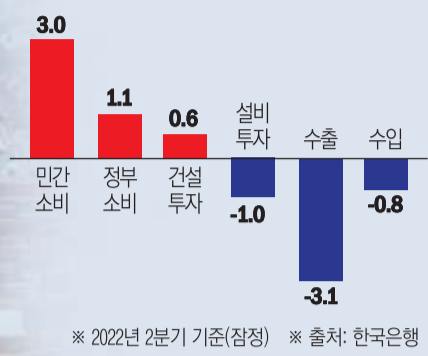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이 시장 전망보다 높은 0.7%를 기록했지만, 내용을 보면 불안 요소가 크다. 민간과 정부의 소비가 성장을 끌어올렸지만, 수출은 감소세로 돌아선 탓이다.

수출은 대외 여건 악화로 하반기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간 소비 코로나 재확산 및 물가 상승 등의 여파로 성장세가 이어질지 미지수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 0.7%는 민간 소비가 전 분기 대비 대폭 상승한 덕분이다.



주요 부문별 경제성장률 (단위: %, 전분기 대비)



민간소비는 준내구재(의류 및 신발 등)와 서비스(오락문화, 음식·숙박 등)를 중심으로 3.0% 증가했다.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대면 활동 증가 영향이다. 정부소비도 사회보장현물수혜를 중심으로 1.1% 늘었다.

반면 1분기 성장률을 떠받쳤던 수출은 화학제품·1차 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3.1% 감소했다.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2분기 이후 처음이다. 2020년 2분기(-14.5%)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가 본격

적으로 반영됐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중국의 지역 봉쇄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의 발목을 잡았다.

하반기는 더 우려스럽다. 일단 한은은 앞으로 0.3%씩만 성장해도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치인 2.7%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황상필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올 1분기와 2분기 전기대비 각각 0.6%, 0.7% 성장했는데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남은 3·4분기 매 분기 0.3%씩 성장하면 조사국 전

망치인 연간 2.7%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 5월 수정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연간 GDP 전망치를 3.0%에서 2.7%로 내린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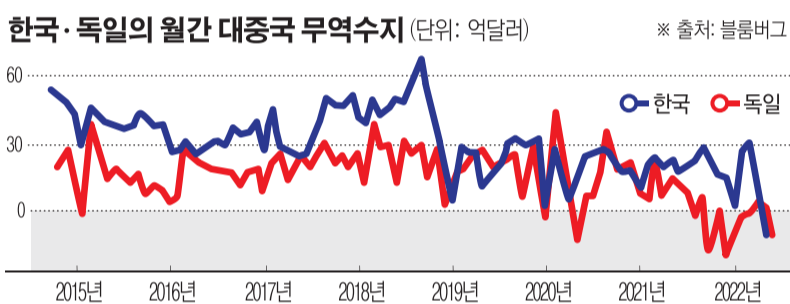
2.7% 성장률 달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5월에 예측한 2.7%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본다”며 “올해 성장률은 2% 중반 정도 유지되고 내년에는 2% 초반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상필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코로나19 재확산과 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 심리가 악화하고 있어 앞으로 민간소비가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는 높은 물가 오름세, 주요국 성장세 둔화 등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수출을 둘러싼 대외 여건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다”라며 “경기 하방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2분기는 (경제성장률) 성적이 괜찮았는데, 하반기는 아무래도 수출이 더 감소할 것 같다”며 “민간 소비 역시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으로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연간 2.7% 성장률은 지금 상황에선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임혜윤 한화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2분기는 예상대로 소비가 반등했지만, 대외수요는 둔화하고 있다”라며 “하반기에는 대외 여건 모두 하방 리스크가 우세해 성장세가 약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中 경기둔화, 韓·獨에 직격탄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도 우려

6월 첨단기술·전자 수입 8% ↓
10년만에 이례적 대중 무역적자

전 세계 주요 수출국들이 중국의 경기둔화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경기둔화로 인한 공산품 수요 감소 여파가 유럽과 동아시아 주요 수출국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 독일은 이례적인 대중국 무역 적자를 내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세관인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공식 수입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에 그쳤다. 첨단 기술과 전자 제품 수입은 8% 급감했다. 이달도 사정은 비슷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도시 봉쇄 정책을 펼치면서 경제활동이 멈춰선 영향이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쥘 우우엔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도시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경기침체로 이어졌다”며 “중국 내수용 공산품 수출국이 특히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10년간 대중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해온 독일과 한국은 지난달 이례적으로 대중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한국과 독일이 각각 12억 달러(약 1조5700억 원)에 달했다. 한국의 대중 수출은 이달 1~20일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해 적자 행진이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상황은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최근 블룸버그 조사에서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3.9%로 나타났다. 중국 당국이 목표치로 제시한 5.5%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장분석기업 TS롬바드의 로리 그린 아시아 리서치 대표는 “중국과 반도체, 글로벌 상품 사이클이 모두 침체기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의 승자였던 한국, 대만 등은 정말 힘든 시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판테온거시경제연구소의 크레이그 보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대중국 수출이 4~5월 감소하고 나서 6월 회복했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수입 둔화 중 일부는 구조적 자원의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주요 수출국의 시름을 깊게 한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올해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급증했지만, 관련 공급망은 한층 더 중국 중심으로 재편됐다. 베이징 대외경제무역대학의 존 궁 교수는 “공급망에서 중국의 움직임은 한국산 자동차 부품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지난 5월 전기차 수출액은 1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2% 급증했다. 과거라면 한국과 독일 등이 중간재 수출로 쓸쓸하게 이득을 봤겠지만, 이제는 그런 특수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김서영 기자 0jung2@

TOOBLED GOLF Laser Range Finder

6.5배 HD광학렌즈 | 147g | 원터치모드변경 | 줌트기능 | 스캔모드

FIND JOY IN YOUR PLAY

TOOBLED GOLF | www.toobled.com | T. 080-850-2580

尹대통령 문자 일파만파... 민심이반 기름 부을 듯

윤핵관-이준석 대표 갈등 맨 '당무'라더니... 속마음 드러나 앞뒤 다르게 윤핵관과 소통 이 대표 토사구팽 기정사실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향해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라고 비판한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속마음이 여과없이 드러난데다 '윤핵관'과 이 대표간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도 '당의 일'이라며 거리를 두는 듯 하던 모습과는 다른 장면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과정에서 윤핵관들과 이 대표 간 갈등이 심화하는데도 '당무'라는 이유로 언급을 자제해왔다.

이 대표 징계가 확정된 지난 8일에도 "국민의힘의 당원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다"면서도 "대통령으로서 당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문자 메시지를 보면 윤 대통령은 평소 '윤핵관'과 당무에 관해서도 소통해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리 당이 잘하고 있다'는 말에서는 2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발언을 지켜보고 있었음을 짐작케한다.

또 권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강기훈과 함(께)... "라는 메시지를 작성한 것에 비춰보면 이준석 대표를 대체할 인물에 관해서도 논의가 오갔던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강기훈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은 1980년생으로 지난 2019년 자유의새벽당을 창당한 정치인이 있다. 강씨는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청년 정책 관련 조언을 하는 등 친분이 있는 사이로 알려져 있다.

권 원내대표가 아무런 설명 없이 '강기

훈과 함께'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윤 대통령도 이미 강씨와 안면이 있는 사이일 것으로 짐작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일이 일회성 헤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점친다. '앞과 뒤'가 다른 윤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데다 권 원내대표가 또 한 차례 구설수에 올랐기 때문이다. '내부총질'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이준석 대표에게 미칠 영향도 클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경우 그렇지 않아도 하락 중인 지지율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던 '공정'이 흔들리는데 이어 진실성마저 의심 받는 상황을 맞았기 때문이다. 민심 이반이 더욱 빨라지면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지지율 30%대가 무너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정치권은 우려한다.

권 원내대표의 경우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으로 입김에 오른지 불과 일주일여 만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아직 남아있는 친 이준석계 인사들이 반발하면서 당 내분이 다시 격화될 수 있다. 특히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에 불만을 가진 당내 인사들을 중심으로 '조기 전당대회론'이 다시 득세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관심은 이준석 대표에게 미칠 파장이자. 일단 윤 대통령이 대선과 지방선거가 끝나자 친정체제 구축을 위해 이준석 대표를 내쳤다는 '토사구팽론'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질 전망이다. 이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권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대표가 선출된다면 오히려 이준석 대표의 설 자리를 잃는 엉뚱한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새 당 대표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한다면 이 대표는 다음 총선에도 나갈 수 없게 된다.

정일환 기자 whan@



급적급적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한덕수(왼쪽 사진부터)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얼굴을 급적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민주당 "포용성장과 거꾸로 간다" 한덕수 "흥청망청 재정에서 전환"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野, 민생위기·부자감세 때리자 韓총리 "최저임금 급속히 올려 약자 오히려 축출" 文정부 비판 경제부총리 "中企 감세 가장 커"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민생 위기'와 '법인세 인하'를 파고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부각하는데 화력을 집중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성장을 때리며 '경제 살리기'를 위한 조치라고 맞불을 놓았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세계경제기구인 IMF, OECD, 세계은행 모두 포용적 성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려 한다. 대대적인 부자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라며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입법 과제 제정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감세' 기조가 뚜렷한 정부의 첫 세계개편안은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한 총리는 "세계상의 배려도 필요하겠지만, 시장 가격 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소득 이전 관련 정책'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맞섰다. 경제 민주화를 통한 동반성장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포용정책을 한다면서 최저임금을 너무 급속히 올린다든지 이러면 결국 우리가 보 호하려는 약자를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축출해 버리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응수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캐치프레이즈였던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성장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고령자 기초연금 인상과 병사 월급 200만 원 살현 등 공약 이행을 위해서라도 재정 확대는 불가피하지 않냐는 지적에도 "공약한 것을 적정한 선에서 다 집어넣고, GDP에 대한 국가부채 비율은 55%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짜고 있고 노력한다"며 "흥청망청 재정에서 타이트한 재정(으로의 전환)에 대한 어려움은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부자 감세' 논란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야당은 새 정부가 이명박(MB) 정부의 정책을 재탕한다면서 정책 경험상 법인세 인화가 기업의 투자 확대로도 이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총리는 "감세(정책)가 추후 다시 조세 증가로 나타나는지는 경제가 그동안 계속 높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얘기하기엔 좀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조세 기본 이론에서 감세는 투자의 확대와 중장기적으로 경제

규모의 확대를 가져온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반박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부세 증가 제도 폐지와 관련해서 "중부세의 기본 원칙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며 "공급 정책을 확대하면서 조세를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는 부분은 정상화를 시키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라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부각했다.

여당은 입호에 나섰다. '부자 감세'를 둘러싼 야당 지적에 한 마디 하라'라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다렸다는 듯 "우선 법인세는 일부 대기업에만 이번엔 감세를 한 것이 아니고 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으며 상대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가 더 많다"고 답했다. 소득세 개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한테 소득 감세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배려를 했다"고 힘줘 말했다.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팽팽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총경 회의를 '쿠데타'로 빗댄 발언의 적절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거세게 설전을 벌이면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나서 장내 소란을 정리하기도 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헬기 34대 역대 최대 육군항공훈련 육군은 25일 경기도 이천 기지와 양평의 비승사격장 일대에서 대규모 항공작전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에서 육군은 아파치 가디언 16대, 블랙호크 13대, 치누크 5대 등 헬기 총 34대를 투입했다. 아파치 공격헬기가 동원된 실기동 훈련으로는 최대 규모다. 이천시 육군항공사령부에서 아파치 가디언 공격헬기가 호버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산업장관 "주52시간 근무제 유연화" 의지 재확인

韓총리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필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근로시간 상한제를 풀려면 관련법 개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향후 국회에서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이창양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52시간 관련해서 근로시간 유연화는 산업계에서도 요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고용부가 최근에 미래노동시간연구회를 발족시켜서 전문가들과 함께 앞으로 깊이 논의해서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겨우 52시간 제도가 안착되고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하는가'라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묻자 "그런 현실에서의 문제,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 제가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저희가 논의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일단 산업계 의견을 강조하면서 현 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도 지난 21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하며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연구·개발

(R&D)까지 확대 허용해온 특별연장근로제(주 52시간 → 최대 64시간)를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둘러싼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도 질타를 받았다. 이 장관이 해당 사태에 대해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해법을 잘 찾지 못하고 우리 조선산업과 기자재 업체, 협력업체들에 피해가 많이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됐다"고 말하자 여당 내에서도 "아무리 산자부 장관이지만 노동자가 먼저 눈에 들어와야 하지 않나"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이 장관은 곧바로 "유념하겠다"고 수습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정부 '文 한국판 뉴딜'도 수정 예고

"투자 사전검토 충분한지 확인"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총리는 "산은 소위 우리의 수분을 상당 부분 유지하거나 머금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산림이 황폐해지는 것은 사실 물 관리에 상당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며 "관련 제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정비해서 산지 태양광의 설치는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험지역에서는 안전점검 실시도 철저히 해서 산사태 같은 것이 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대정부질문 이튿날인 경제 분야 질문에서도 여당의 '문재인 정부 때리기'는 계속됐다. 대표 경제정책인 한국판 뉴딜사업, 탈원전 정책 등이 도마에 올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을 비판했다. 태양광 사업 발전으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민 안전이 위협받았다는 이유에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조 의원의 문제제기에

이반희 기자 nancho0907@

우리가 꿈꾸는 가치 있는 미래는,

아이들이 어디서든 마음껏 배우며 꿈을 키우고
청년들이 누구나 자신만의 새로운 도전을 펼치고
모두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가며
삶에 감동을 더하는 기술이 가득한 미래

미래, 같이

다 같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가치 만들기,
LG가 함께 하겠습니다.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응원합니다



7개 지방 국제공항 모두 국제선 재개 26일 청주국제공항과 베트남 달랏을 오가는 국제노선이 다시 열리면서 코로나19 이후 2년 5개월 만에 국내 7개 지방 국제공항 모두 국제선 운항이 재개됐다. 윤형준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한 항공 관계자들이 이날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축하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조현욱 기자 gusdnr8863@

KDI “법정최고금리 올려야 취약계층 사채로 안 밀려나”

‘시장금리 연동제’ 제언

기준금리가 오를수록 취약계층들이 2금융권에서 밀려나 대부업이나 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들이 제도권 안에서 대출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시장금리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DI는 26일 ‘금리 인상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 최고금리 운용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금융기관이 가계와 기업에 대출을 하기 위해 조달하는 금리도 상승한다. 특히 현재 20%인 법정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는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의 조달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대비 더 오른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기준금리는 1.25%p(0.5%→1.75%) 인상됐지만 카드채·기타금융채(AA+, 3년물)의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폭보다 2배가 넘는 2.65%p(1.8%→4.45%) 상승했다.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 가구 대부분은 취약가구다. 6월 기준 금리가 4% 이하인

고금리대출 10명 중 9명 취약계층 이미 법정최고금리 20% 근접해 기준금리 더 오르면 대출 못해줘 재정정책 통한 취약층 보호 필요

저금리 신용대출 이용 가구 중 취약가구의 비중은 8.9%에 불과한 반면, 법정최고금리에 근접한 고금리(18~20%) 신용대출 이용 가구 중에서는 취약가구의 비중이 무려 84.8%에 달한다. 4% 이하의 저금리 대출 이용 가구 중 약 10.8%가 다중채무자인데 반해 법정최고금리에 근접한 고금리 대출 이용 가구 중에서는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48.6%에 달한다. 보고서는 “조달금리가 상승하면 법정최고금리·조달금리 스프레드가 감소하고, 그 결과 법정최고금리와 근접한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던 취약가구가 2금융권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며 “특히 향후 기준금리 인상으로 취약가구가 대부업이나 비제도권 금융시장에 밀려나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취약가구가 2금융권에서 배제 받게 되면 롤오버(roll-over) 제약으로 인해 타 금융권으로 연체가 파급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롤오버는 금융기

관이 상환 만기에 다른 채무의 상환을 연장해 주는 조치를 말한다.

보고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금리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조달금리의 상승 폭 만큼 법정최고금리가 인상돼 현행 고정형 법정최고금리 하에서 조달금리 상승으로 대출시장에서 배제되는 취약차주의 대부분에게 대출 공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법정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의 대출상품에 존재하던 가격 경직성, 즉 대출금리의 경직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금리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제도는 전체 소비자의 사전적·사후적 소비자 후생 증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법정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함으로써 금리 인상기에도 취약계층의 롤오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한 시장금리와 법정최고금리의 스프레드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시장에서 차입할 수 있는 가구의 범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상환부담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가구에 대해서는 정책금융 혹은 재정정책을 통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온라인 플랫폼 분쟁 5년간 9배로 폭증

코로나 여파 2020년부터 확 늘어 오픈마켓·입점업체 간 다툼 70%

#유리제품 판매업자인 A씨는 B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소비자에게 유리컵, 유리주전자 등을 판매해왔다. A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2021년 12월경 유리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폐업하자, B사는 판매대금의 지급을 보류하면서 A씨에게 폐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통지했다. 이에 A씨는 B사에 폐업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나 B사는 올해 2월까지 서류 검토 지연을 이유로 판매대금 지급을 보류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최근 5년간 플랫폼 관련 분쟁이 9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오픈마켓과 입점업체 간 분쟁이 70%

에 달했다. 2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접수 건은 2017년 12건, 2018년 17건, 2019년 34건, 2020년 73건, 2021년 103건으로 늘었다. 2020년부터 분쟁 접수 건이 급증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분쟁 발생 사업 분야는 2017년 오픈마켓, 포털, 여행중개 등 3개에서, 2021년에는 이를 포함한 배달, 채용, 홈페이지 운영, 디자인, 숙소예약, 대리운전, 택시, 중고거래, 전자결제 등 12개로 확대됐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이 전체 접수의 69%를 차지했다. 오픈마켓은 개인이나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개설한 점포를 통해 자유롭게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거래 중계 플랫폼으로

G마켓, 11번가 등이 대표적인 사업자다. 관련 분쟁 사례로는 △상품판매 혐의 등을 이유로 일방적 판매정지 조치 △입점업체의 폐업, 사업자 양도양수, 소비자와의 환불분쟁 등을 이유로 판매대금 일방적 지급 보류 △오픈마켓 광고 서비스 이용 입점업체에 예상치 못한 과도한 광고비 부과 △입점업체 또는 소비자 중 어느 쪽 과실인지 묻지 않고 소비자의 환불요청 수용 등이 있다.

조정원은 “판매대금 일방적 지급보류의 분쟁을 줄이려면 오픈마켓은 정산기준·예상 처리기간·관련 절차 등을 상세히 정해 사전에 적극 안내하고 정산요구 접수 시 신속히 처리토록 할 필요가 있다. 입점업체는 평소 관련 절차를 숙지하고 필요 서류 등을 제출해 정산처리를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고령층 69% “73세까지 근로 희망”

“생활비 보탬” 57% “무료해서” 4% 연금 과반 50만원 미만으로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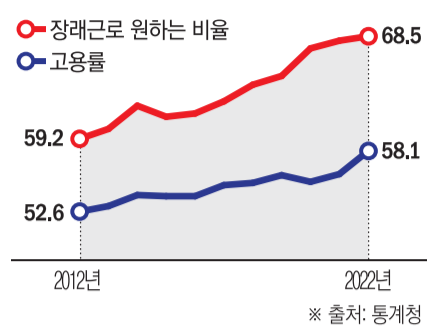
취업 경험이 있는 50~60대는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에 평균 15년 5개월 근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장기근속했던 회사를 떠날 당시 나이는 평균 49.3세(남 51.2세, 여 47.6세)였다. 55~79세 고령층 10명 중 7명은 평균 73세까지 계속 일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를 보면 55~64세 취업 유경험자의 생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 평균 근속 기간은 15년 4.7개월로, 전년 동월 대비 2.6개월 증가했다. 근속 기간별로 보면 10~20년 미만 근속 비중이 30.3%로 가장 컸으며, 30년 이상 근속 비중은 16.4%로 나타났다.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폐업이 30.9%로 가장 많았다. 권고사직· 명예퇴직·정리해고(10.9%)를 포함하면 41.8%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일자리를 잃은 셈이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521만 2000명) 중 현재 취업 중인 경우(284만 7000명)는 54.6%에 불과했다.

고령층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68.5%(1034만 8000명)로 전년 같은 달보다 0.4%포인트(P) 상승했다. 이들이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연령은 평균 73세까지였다. 이미 70세를 넘긴 고령층 중 70~74세는 평균 79세까지, 75~79세는 평균 82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근로 희

고령층 인구 현황 (단위: %, 매년 5월 기준) * 고용률: 고령층 취업자/15세이상 인구



망 사유로는 ‘생활비에 보탬’이 57.1%로 가장 많았고, 일하는 즐거움·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34.7%), 무료해서(4.1%) 등이 뒤를 이었다.

고령층이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는 연금만으로는 생활하는 게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1년간 연금 수령자 비율은 49.4%(745만 7000명)로, 전년 동월 대비 1.0%p 상승했지만,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69만 원에 그쳤다. 25~50만 원 미만의 연금을 받는 비중이 44.4%로 가장 높았고, 50만~100만 원 미만(27.5%), 10만~25만 원 미만(11.0%) 등이 뒤를 이었다.

고령층이 장래 희망하는 월평균 임금수준은 150만~200만 원 미만(20.9%), 200만~250만 원 미만(18.5%), 100만~150만 원 미만(17.8%) 등의 순이었다. 희망 일자리 형태는 전일제가 54.2%, 시간제 45.8%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전일제 희망 비중이 줄어들고, 시간제 희망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났다.

세종=정대환 기자 vishalist@

국내 농업기업 ‘FTA 관세 혜택’ 적게 누리

수출활용률 56%…타업종 76%

농식품 수출이 연일 최고액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농업기업들은 타 산업 분야에 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역내 포괄적경제동반협정(RCEP)의 활용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RCEP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첫 메가 FTA로 국내 발효 이후 5개월이 됐다. 정부는 이 시점에서 RCEP 활용 지원정책을 공유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민간위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농업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FTA 수출활용률은 FTA로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된 품목의 전체 수출액 가운데 원산지 증명을 통해 실제로 관세 인하 혜택을 받아 수출한 금액의 비율이다. 수출활용률이 높다는 것은 우리 농산물을 FTA 상대국에 수출할 때 FTA로 얻은 관세 혜택이 많다는 의미다.

회의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농업기업의 지난해 FTA 수출활용률은 55.8%로 집계됐다. 다른 산업의 경우 수출활용률은 76% 수준으로 약 20%의 차이를 보였다.

이성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기업육성부장은 회의에서 “농수산물 수출은 2021년 100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우리 농업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FTA 수출활용률은 저조하다”며 “FTA 활용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IPEF 14개국 장관급 회의 열어 ‘공급망’ 논의

정부가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함께 공급망 재편 등 ‘신통상 이슈’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이틀간 회상으로 진행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지나 레이몬드 상무부 장관의 공동 주재로 개최됐다. 미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14개국 장관급 인사가 참여했으며 참여국 간 협상에서 다룬 의제와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지난 5월 23일 정상회의를 통해 출범한 IPEF는 급변하는 국제 공급망 환경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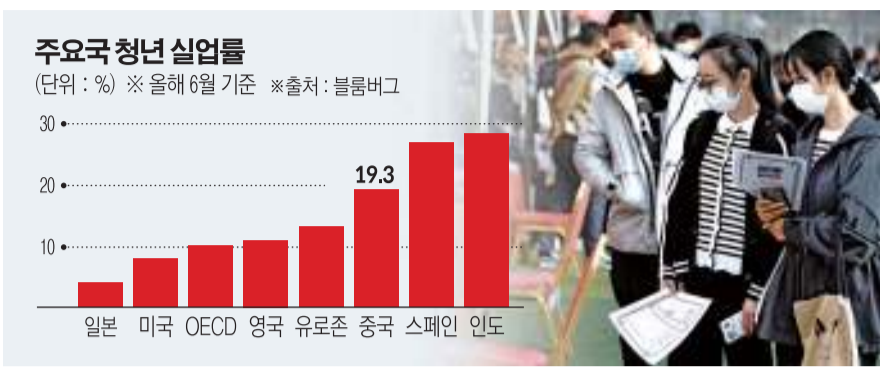
응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통상협력체다. 공급망 교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 이슈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일각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력체라는 지적도 나왔으나, 한국 정부는 IPEF 출범부터 함께하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도 안 본부장은 참여국 간 심도 있는 협의를 높게 평가하며 앞으로도 신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질적 성과 창출이 중요하며 지역 내 연결성과 통합성 강화를 위해 더욱 신뢰할만하고 지속 가능한 신통상 규범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박준상 기자 joooon@

<1990~2000년대 출생>

스펙 쌓으면 뭐하나... “中 Z세대, 5명 중 1명 실업자”

청년 도시 실업률 19.3% ‘美 2배’ 올해 1200만 대졸 취업자 쏟아져 국영 기업·공무원 선호 현상 뚜렷 中, 장기적 경제성장 악영향 우려



중국 청년층 고용위기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제로 코로나’ 봉쇄 조치 등 중국의 각종 규제 정책의 여파가 청년 실업률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16~24세 도시 실업률은 6월 19.3%로 미국(8.1%)의 두 배가 넘었다.

중국의 Z세대는 역사상 가장 교육수준이 높고,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습득력이 높은 세대로 꼽힌다. 이 때문에 Z세대는 중국 인파에서 경제와 산업의 한 단계 더

높은 진화를 이끌 것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세대다.

하지만 이제 청년층은 짙어진 경기둔화 그림자 속에서 취업조차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현재 실직 상태에 있는 중국 청년은 1500만 명에 달한다.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부터 부동산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단속으로 민간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들 기업에서 일하고 있던 청년들은 실직자로 내몰리게 됐다.

일자리는 줄어들었지만, 구직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당장 올여름에만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졸업생 1200만 명 정도

가 구직자로 취업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사상 최대 규모다. 블룸버그는 고학력 인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인력 수급 불일치가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층의 ‘꿈의 직장’이나 희망연봉 눈높이도 대폭 낮아지고 있다.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는 공기업이나 공무원 같은 안정적인 직장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취업정보업체 51잡에 따르면 중국 대졸자의 약 39%가 국영기업 취업을 1지망으로 꼽았다. 공무원을 1지망으로 선호하는 대졸자는 28%였다.

자연스럽게 청년층의 희망연봉도 줄어들고 있다. 또 다른 채용정보업체 질리안(Zhilian)이 올해 4월 설문 조사한 결과 대졸자가 기대하는 초봉은 전년 대비 6% 떨어진 월 6295위안(약 122만 원)으로 집

계됐다. 국영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희망연봉 눈높이가 내려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민간영역에 대한 청년층의 취업 선호도와 소득 기대치 하락은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 동력을 저하할 수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특히 유능한 인재들이 공무원이나 공공기업으로 몰리는 현상은 2035년까지 중국 경제 규모를 2020년 수준의 두 배로 만들겠다는 시진핑 국가 주석의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는 이런 현상을 크게 우려하지 않는 눈치다. 블룸버그는 청년 구직자들이 정부에 반발하기보다는 합류하길 원한다는 사실에 오히려 안도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꼬집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경기침체 온다”...지갑 닫고, 핸들 묶은 美

미국에서 높은 인플레이션 탓에 소비자들이 평소보다 운전과 소비를 줄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미자동차협회(AAA)가 지난달 미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4%가 차솟는 에너지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운전을 비롯한 생활 습관을 바꾼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88%는 운전을 줄였고, 절반 이상이 쇼핑과 외식을 줄였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상당수가 올해 휴가를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휘발유 가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인 3월부터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치솟았다가 최근 들어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현재 가격인 갤런당 4.355달러는 여전히 1년 전보다 38% 높은 상황이다.

휴스턴 라이스대베이크공공정책연구소의 미셸 포스 연구원은 “가처분 소득

고유가·인플레이에 88% 운전 줄여 월마트, 소비 감소에 실적 하락 앨런·바이든 “경기침체 아냐” 진화

이 계속 인플레이션에 밀리는 이상 유가 하락만으로는 생활 패턴이 회복하지 못할 수 있다”며 “가격이 내려가면 휘발유 판매에 속도가 붙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소매업체도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월마트는 소비 행태가 변함에 따라 2분기과 연간 실적 전망을 대폭 하향했다.

월마트는 이날 회계 2분기(5~7월)와 연간 조정 주당순이익(EPS)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8~9%, 11~13%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마트는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의류나 전자제품 등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식품과 같은 필수품에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필수품은 전자

제품이나 의류보다 이익 마진이 낮다.

앞서 월마트는 지난 5월 실적 발표 당시 2분기 EPS는 소폭 증가, 연간은 1% 감소라는 전망치를 제시했는데 10주 만에 하향 조정한 것이다.

빌 사이먼 전 월마트 최고경영자(CEO)는 CNBC방송에 출연해 “본격적인 경기침체를 앞두고 소매업체들 사이에서 재고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불거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침체 불안감이 커지자 미국 정부는 우려 해소에 나섰다. 전날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NBC방송에 출연해 “강력한 고용 수치와 소비자 지출에 따라 경기침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데 이어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업인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실업률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미국이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원숭이두창 비상식적 확산... 대처 안일”

감염병 전문가 “골든타임 실기” 경고

원숭이두창이 전 세계에서 비상식적으로 확산하는데 각국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감염병 전문가가 경고했다.

미국 뉴욕시 헬스플러스 병원의 전염병 전문가인 사이라 마다드는 25일(현지시간)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가 이상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이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우려할 만한 점은 원숭이두창이 풍토병이 아닌 국가들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3일 원숭이두창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했다. WHO에 따르면 올해 원숭이두창은 70개국 이상에서 1만 6000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특히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 감염자 수가 77% 증가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마다드는 “WHO가 PHEIC를 선언한 것은 원숭이두창을 세계 보건에 심각한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는 의미”라며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으로 악화하기 전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겪은 세계가 원숭이두창 확산을 이 정도로 다루고 있다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풍토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다드는 “원숭이두창 확산을 막을 가장 좋은 방법은 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에 백신을 빠르게 접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백신이 계속 출시되고 있다. 내년 중반 혹은 말까지 160만 회분의 백신이 공급될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수요가 공급을 앞서고 있다는 점이다. 유행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새로운 바이로봇으로 안전을 더하다!

www.hauri.co.kr

더 강력한 기능으로 새로워진 통합백신 - 바이로봇

- 듀얼엔진과 행위기반기술이 적용된 통합보안솔루션 - 바이로봇 시큐리티 1.0
- 다양한 보안위협으로부터 서버를 안전하게 보호 - 바이로봇 시큐리티 서버 1.0
- 조적내 백신 및 보안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 바이로봇 매니저 1.0

HAURI (주) 허우리 | 서울시 동작구 안양로 104 | 대표전화 02-3676-1100

'우리銀 횡령' 내부통제 부실 탓...1년간 무단결근도 몰라

금감원 우리銀 현장검사 결과

금융감독원이 약 700억 원의 우리은행 횡령사건의 주요 원인을 '내부통제 부실'로 결론을 내렸다. 횡령 직원이 1년간 무단 결근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인사관리, 공문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등 우리은행 내부통제 기능이 사실상 제 기능을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추후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26일 발표한 우리은행 횡령사건 현장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 A 씨는 8년간(2012년 6월~2020년 6월) 8회에 걸쳐 총 697억 3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기소할 당시의 횡령금액(614억원)보다 약 83억원 늘어난 규모이다.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5000만 원을 직인을 도용해 출금하거나 공·사 문서를 위조해 3회에 걸쳐 횡령했다. 이 직원은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등 59억3000만 원을 출금 요청 허위 공문을 발송해 4회에 걸쳐 빼돌렸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횡령금액의 3분의 2 가량을 A 씨의 동생 증권 계좌로 유입됐다"며 "주로 이제

8년간 8회 걸쳐 697.3억 횡령 3분의 2가량 직원 동생 계좌로 대부분 주식·선물 옵션에 투자

인사·공문·통장직인 관리부터 감사·이상거래모니터링 부실 내부통제 부실 '제재수위' 주목

주식이나 선물 옵션 등에 투자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 친인척 사업자금 등으로 쓰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이번 횡령사건에 대해 A 씨 개인의 일탈이 주된 원인이지만,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원장은 "A 씨가 횡령하는 과정에서 인사관리, 공문관리, 통장 직인관리, 문서관리, 직인 날인 관리, 출자전환주식 관리, 자점감사 관리, 이상거래모니터링 등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부실했다"면서 "현재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이런 파악된 사실 관계를 기초로 해서 이제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부서에서 법적 검토와 함께 제재국과의 법적 검토 등을 협의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A 씨가 1년간 무단결근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별한 문서없

이 구두 보고만으로 파견을 승인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내부통제 부실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이 조사 과정에서 파견 업체에 직접 확인한 결과 A 씨의 파견 사실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결제 OTP 관리자(보관 부서금고 관리자)를 무단으로 사용했고, 행장 직인 문서까지 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부원장은 "현재 내부통제 미비와 미준수를 두고 금융회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는 있지만(DLF징계), 이번 조사의 핵심은 우리은행의 내부 통제 기능이 적절하게 작동했는지 여부였다"면서 "이 부분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을 700억 원 횡령사건의 주된 원인으로 꼽으면서 추후 제재 수위가 어느 정도선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제재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지만, 어떤 법을 적용받느냐에 따라 제재 수위가 범위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원장은 "A 씨와 관계가 있는 담당 팀장, 부장까지 관련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며 "(관련자는)임원, 최종적으로는 행장, 회장까지 연결되었지만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지방 소상공인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중앙시장에서 불법 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나눠주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聯, 한은 금통위원에 신성한 교수 추천

신 교수 "엄중한 경제상황에 책임"

은행연합회는 한국은행법 제13조에 따라 임지원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후보로 신성한(사진)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를 추천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성한 교수는 홍익대학교에서 20년 이상 재무관리, 국제 금융 분야를 연구한 대표적인 금융전문가다. 전 한국금융학회 및 한국연금학회 회장으로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세계은행 선임재무역,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한국투자공사 운영위

《홍익대 경영학부》

원을 역임하여, 금융 정책 및 현안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인사위원회 경제1분과 인신위원도 지냈다.

신 교수는 "민간부채와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야 하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 금융통화위원을 맡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경제가 대내외 위험요인들을 잘 극복해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수출입은행장에 윤희성 전 부행장...첫 내부 출신

한 달 넘게 공석이던 한국수출입은행 신임 행장 자리에 사상 처음으로 내부출신인 윤희성(사진) 전 수은 부행장이 내정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윤희성 전 수출입은행 부행장이 제22대 수출입은행장으로 임명제정 됐다고 26일 밝혔다. 수은은 기획재정부 소관 정책금융기관으로 행장은 기재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희성 신임 수은 행장 내정자는 1988



윤 전 부행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1988년 수출입은행에 입행했다. 이후 외화조달팀장, 홍보실장, 국제금융부장, 자금시장단장, 혁신성장금융

본부장(부행장) 등을 역임한 후 지난해 초 퇴임했다.

윤 내정자는 국제금융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소통 능력이 뛰어나 수은 재직 중 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웠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윤 전 부행장이 행장으로 임명된다면 첫 내부 출신 행장이 된다. 행장 대부분은 기재부 출신이었다. 역대 21명 행장 가운데 15명이 재무부, 재정경제부 등 경제관료 출신이다. 송영록 기자 syr@

AIA생명 '바이탈리티 종신탁약' 3종

주계약보다 저렴하게 설계 가능

AIA생명은 종신탁약 상품인 '(무)AIA 바이탈리티 유엔아이 평생설계종신보험'에 부가할 수 있는 (무)AIA 바이탈리티 체증종신탁약을 판매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IA생명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유족보험'이란 말이 있을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동안 건강관리 지원, 보험료 할인 적립, 유연한 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AIA생명의 바이탈리티 종신탁약은 바이탈리티 혜택을 통해 주계약 보험료보다 낮은 보험료 설계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바이탈리티 종신탁약은 총 3종으로, 사망보장금이 동일한 평준형,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금 보장이 줄어드는 체증형, 점점 보장 금액이 늘어나는 체증형이 있으며 고객은 생애주기나 가입목적에 따라 특약을 선택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체증형을 선택해 자녀의 학업 시기에는 사망보장을 든든히 하고, 자녀의 학업이 끝나는 시기에는 이를 낮출 수 있다. 노후대



비를 고려하는 경우라면, 처음에 적은 보장으로 시작해서 점점 보장금액을 늘리는 체증형을 선택할 수 있다.

헬스케어 서비스와 리워드 제공 또한 눈길을 끈다. 고객들은 우대가격 건강검진, 수술 시 차량 에스코트 지원, 전문 간호사의 방문 상담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견기를 열심히 하는 고객에게는 보험료 할인 금액만큼 주계약에 추가 적립해주고, 매주 스타벅스 커피 쿠폰 등의 리워드가 제공된다. 이 상품은 10년 납 기준으로 남자는 만 15세~60세까지, 여자는 만 15세~64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서지연 기자 sjy@

'최대 실적' 농협금융 상반기 순이익 1.3兆

농협금융그룹이 금융지주 출범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 실적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농협금융은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1조350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686억 원) 증가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농협금융이 타 금융그룹과 달리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지원사업비 2252억 원을 포함한 당기순이익은 1조5040억 원이다.

2분기(7542억 원) 들어 이자이익 증가세에 탄력을 받았다. 부문별로 보면 이자이익은 기업대출 위주의 대출 자산 성장을 바탕으로 4조5669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017억 원 증가했다.

농협은행은 당기순이익이 922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665억 원) 늘어났다. NH농협생명(1964억 원), NH농협손해보험(725억 원) 등 주요 계열사는 전년 동기 대비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 서지연 기자 sjy@

롯데카드, 일시불 나눠내는 '로카 나누기 카드'

수수료 없이 최대 6개월 변경

롯데카드는 일시불을 부담 없이 나눠 낼 수 있는 'LOCA 나누기 카드' (사진)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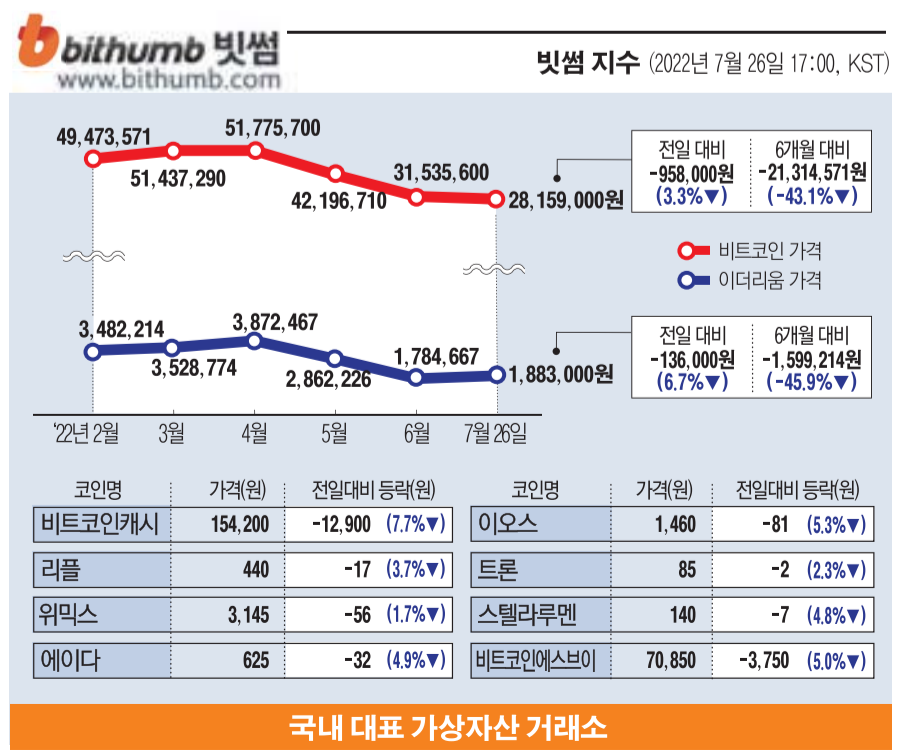
이 카드는 결제한 일시불 이용액을 롯데카드 디지털카오펀을 통해 납부 개월 수를 최대 6개월까지 변경하고 추가 수수료 없이 나눠 낼 수 있다. LOCA 나누기 혜택은 실적 기준 없이 제공되며, 일시불 이용내역이 포함된 결제일 2영업일 전까지 롯데카드 디지털카오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카드 결제 시 별도로 할부를 요청할 필요 없이, 일시불 결제 후 본인의 자금 관리 계획에 따라 그대로 일시불로 납부하거나 LOCA 나누기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일시불로만 결제 가능한 해외 이용금액까지



도 나눠 낼 수 있어 편리하다.

LOCA 나누기 카드로 결제한 일시불 이용금액이 건당 3만~30만 원인 경우 3개월, 30만 원 이상인 경우 3개월 또는 6개월 LOCA 나누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국제, 지방세, 4대보험, 월세, 임대료, 기프트카드, 상품권 결제 등의 매출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결제일 2영업일 전까지 롯데카드 디지털카오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연회비 2만 원. 김범근 기자 nova@



농촌이란 보물 우릴 위한 선물

시원한 숨 한 모금이 절실했던 우리,
자연의 소리에 위로 받고
따스한 풍경에 치유 받는
기분 좋은 힐링 여행.
**가슴 속 숨통이 확 트이게 -
올 여름엔 농촌으로 떠나요!**



〈삼성자산운용 대표〉

‘TDF 선두’ 삼성운용… ‘서봉균의 매직’ 通했다

TDF ETF 출시 한달 성적은

‘코덱스TDF2050’ 3.55% 1위
한화·키움운용 ETF보다 앞서

외국계 출신 서봉균 ‘파격인사’
삼성자산운용에 활력 불어넣어
디폴트 옵션 도입에 TDF 경쟁

서봉균 대표가 이끄는 삼성자산운용이 타
깃데이트펀드(TDF) 상장지수펀드(ETF)
) 시장에서 왕좌의 자리를 차지했다.

삼성자산운용은 지난달 30일 키움투자
자산운용·한화자산운용과 TDF ETF 10
종을 동시에 상장하면서 삼국지 생존게임
을 시작했다.

TDF ETF는 7월 근로자가 퇴직연금 운
용방법을 사전에 지정하도록 하는 디폴트
옵션 제도가 시행되자 국내 운용사들이 300
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을 잡기 위해
야심 차게 내놓은 상품이다.

자산 배분 타깃데이트펀드, 외부위탁운
용관리(OCIO) 모델을 적용한 펀드, 타깃
인덱스(TIF) 등에서 ETF로 전쟁터를
확대한 것이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삼성자산
운용의 코덱스 TDF 2050 ETF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3.55%의 수익률을 올
리며 한화자산운용과 키움투자자산운용의
TDF ETF를 제쳤다. 이는 코스피가 움직
인 수준(3.44%)보다도 높다.

코덱스 TDF ETF는 삼성자산운용과
앤드퍼어스(S&P) 글로벌이 공동 개발한
글라이드 패스(은퇴 시점까지 조정되는
주식과 채권 투자의 비중 추이)가 적용됐
다. 주요 보유 종목은 원화 예금과 벤가드
S&P 500 ETF, 아이셰어 S&P 500 인덱
스 펀드 등이다.

삼성의 TDF ETF가 치열한 경쟁을 뚫
고 수익률 1위 자리를 지킨 이유는 서 대표
덕분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삼성자산운용 대표 자리에 오
른 그는 취임 때부터 ‘파격 인사’로 꼽혔
다. 통상 삼성자산운용의 대표는 삼성생명
출신이었었는데, 서 대표는 모건스탠리, 씨

펀드명	수익률
삼성KODEXTDF2050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3.55%
한화ARIRANGTDF2030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3.50%
삼성KODEXTDF2030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3.31%
키움히어로즈TDF2040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3.22%
키움히어로즈TDF2050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3.22%
삼성KODEXTDF2040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3.10%
한화ARIRANGTDF2060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3.05%
키움히어로즈TDF2030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2.77%
한화ARIRANGTDF2060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2.62%
한화ARIRANGTDF2060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2.22%

타깃데이트펀드
상장지수펀드 수익률
상위 10종목

※6월 30일~7월 26일 기준



삼성자산운용 대표
서봉균

티그룹, 골드만삭스 등을 거친 외국계 증
권사 출신 전문가다. 서 대표가 삼성자산
운용 대표의 관행을 깬 것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서 대표가 삼성자산운용에 활
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봤다. 한 업계 관
계자는 코덱스 TDF ETF의 선전에 “삼성의
전략이 통했다”고 평가했다.

아리랑 TDF ETF는 한화와 글로벌 펀
드 평가사 ‘모닝스타’가 함께 개발한 글라
이드패스와 기초지수를 추정하는데, 모닝
스타의 5개 기초지수를 자산 배분의 투자

대상으로 사용한다. 히어로즈 TDF ETF
는 다우존스 타깃 2040 인덱스를 기초 지
수로 맥쿼리 인프라 등을 담고 있다. 코덱
스 TDF 2050 ETF의 뒤를 한화의 아리랑
TDF 2030 ETF(3.50%), 키움의 히어로
즈 TDF 2040 ETF(3.31%)가 이었다.
가장 수익률이 낮은 건 아리랑 TDF 2060
ETF(2.22%)였다.

지난 12일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
션)이 시행되면서 TDF는 디폴트 옵션에
담기는 대표적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TDF는 가입자가 목표 시점(Target Date)
)을 설정하면 생애 자산 배분 곡선에 따라
주식과 채권 등의 비율이 자동적으로 조절
되기 때문이다. 은퇴 시점이 비교적
적 먼 2030은 주식의 비율을 높여 공격적
으로, 그렇지 않은 4050은 안정성을 위해
채권 비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TDF 시장이 주목을 받자 자산운용사들
은 너나 할 것 없이 TDF ETF를 출시했
다. 지난달 30일 한화, 삼성, 키움 등 3곳
의 증권사에서 10개의 TDF ETF를 동시
에 상장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세 증
권사는 각각 2030·2040·2050(목표 은퇴
시점) TDF ETF를 만들었는데, 한화만
유일하게 2060 상품까지 내놨다.

한화자산운용 관계자는 “2060은 TDF
상품을 통틀어 가장 긴 시간 투자할 수 있
는 상품으로 20~30대뿐만 아니라 보다 공
격적인 원하는 이들을 위해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수익률에
대해 “S&P 글로벌과 공동 개발한 지수가
직관적이고 시장 상황과 잘 맞아 떨어진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문수빈 기자 bean@

오버행 우려... “LG엔솔 주가 불안 가을까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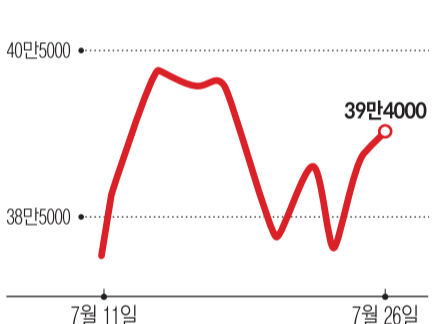
오늘부터 의무보호예수 해제
패시브모멘텀 기대도 어려워

오버행(대규모 물량회회) 이슈에 노출
된 LG에너지솔루션(이하 LG엔솔)의 주
가 변동성이 단기에 고치지 않고 가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대했던 유동비
율 변경이 8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
널(MSCI) 지수에 전부 반영되지 못할 것
으로 예상된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7일부터
LG엔솔 상장 주식의 86%에 이르는 2억
146만 주 보호예수 의무가 해제된다. 기
업공개(IPO) 당시 6개월 의무보유로 묶
였던 주식들이다.

증권업계는 LG엔솔의 6개월 확장지분
물량이 상장주식 수 대비 4.3% 수준임을
고려하면, 단기 수급 충격이 나타날 것으
로 보고 있다. 운용사 배정물량은 3개월
확약 0.56%에서 6개월 확약 2.3%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적정 벤치마크(BM, 기준
수익률) 비중을 초과한 지분의 처분 유인

LG에너지솔루션 주가 (단위: 원)



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기금·보험·은행의 배정물량도 6개월
에 편중돼 있고, 금융투자 등으로 판단되
는 기타 자금도 배정률이 높다. LG엔솔의
공모가(30만 원) 대비 주가 수익률이 약
30%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자금에서도 매
물 출회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의 6개월 확
약지분이 1%에 달하는 점도 이례적이다.

의무보호예수 해제를 앞두고 주가 변동
성도 커지기 시작했다. 지난 22일 LG엔솔
의 주가가 2.18% 빠진 데 이어 25일에는
주가가 2.88%까지 하락했다가 오후 들어
외국인과 기관의 ‘사자’에 전 거래일 대비

2.36%로 플러스 전환하며 마감했다. 이어
26일에는 전일 대비 4.73%까지 오르다 상
승분을 반납하고 0.77% 오른 39만4000원
에 마감했다.

수급 이슈는 8월 MSCI 정기변경에서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약 9%인 유동비
율이 보호예수물량 해제로 15%까지 상승
할 경우 패시브 자금은 이론상 약 2500억
원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LG엔솔의 유동비율이 낮기 때
문에 편입비중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
을 가능성도 크다. 보호예수 해제 물량과
관련된 유동비율 변경이 8월 MSCI 정기
변경에 전부 반영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
이다. 8월 미반영 후 11월 전부 반영되거
나, 8월 일부 반영 후 11월 잔여분이 반영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실질적으
로 수급이 반영되는 시점은 11월 정기변경
이므로 패시브 모멘텀을 기대하기에는 이
른 시점으로 판단된다”라고 분석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금융위 ‘기울어진 운동장’ 고친다 ‘공매도 담보 비율’ 3분기 내 조정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

금융당국이 기울어진 공매도 제도 합
리화를 위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부자 거래
에 대한 시장 규율을 강화하고자 일반
주주 보호 권리를 부여하는 ‘의무공개
매수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여의도 금융투
자협회에서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
담회’를 열고, 새 정부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
리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해 민간전문가 및 자본시장 학계
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매도 제도 개
선으로 공매도 비중이 높은 공목의 공
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확대가 새롭게 논의됐
다. 또 불법공매도 발생 조기 차단을
위해 장기·대량 공매도 거래 테마조사
를 정례화하고, 조사결과는 주기적으
로 대외발표하기로 했다.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 시 요구되
는 담보비율에 있어 개인투자자(140%)
와 기관(105%) 간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같
은 공매도 제도 합리화 방안을 올해 3
분기 이내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또 물적분할 시 일반주주 보호와 관련
해서는 자회사 상장심사를 강화해 주주

보호 노력이 미흡할 경우 상장지 제한된
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와 신주
우선배정 방안 도입 여부에 관해서는 관
계부처와 추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부당이익배산정방식을 법제
화하고, 불공정거래 시 형사처벌 외에
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
에 있다. 또 해외사세를 참고해 증권거
래 및 계좌 개설 제한, 상장회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추가 행정제재 도입을 추
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시장
규율 강화 △주식 상장폐지 요건 정비
및 단계 세분화 △회계 투명성 제고 △
혁신·벤처기업 성장을 뒷받침 △증권형
토론 규율 등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의 자본시장 국
정과제는 일반 주주 보호 강화 등을 통
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성
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국정과제 외에도 규제
개혁 등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을 선진
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
받침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관련 주요 의제
발굴을 위해 오는 9월부터 2~3주 간격
으로 학계·시장참여자 등 관계자들과
함께 ‘텔레비 세미나’를 개최할 방침
이다. 정희인 수습기자 hihello@

“금리상승·시장침체 직격탄”...증권사 2분기 실적 ‘암울’

NH·KB證 등 실적 ‘반토막’
하나證 영업익·순익 -90%

국내 증권사들의 2분기 실적이 금리 상
승과 주식시장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
르면 연결 기준으로 NH투자증권의 2분기
영업이익은 1542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
다 60.8% 감소했다. 순이익도 1196억 원
으로 55.8% 줄었다.

국내 업황이 악화하면서 브로커리지(주
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지와 금융상품 판
매 수수료 수익이 감소했다. 특히 미국의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러시아-우크라
이나 전쟁 등 지정학 이슈로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운용 부문 실적도 악화했다고

NH투자증권은 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989
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0.50% 감
소했다. 순이익은 845억 원으로 45.00%
줄었다. 회사 측은 “금리 상승에 따른 유가
증권 평가 손실과 큰 폭의 주식 거래대금
감소로 위탁 수수료가 줄어 이익이 감소했
다”고 설명했다.

KB증권의 2분기 영업이익은 854억 원
으로 58.08% 감소했으며, 순이익 역시
702억 원으로 54.64% 줄었다.

하나증권의 2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같
은 기간보다 90.30% 급감한 175억 원으
로 집계됐다. 순이익도 89.89% 줄어든
196억 원이었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증시
거래대금 감소에 기인한 증권 중개수수료
약세 등으로 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 기준)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2분기 국고
채 3년물 기준 금리는 1분기 대비 89bp
(1bp=0.01%포인트) 상승했으며 변동성
도 상당했다”며 “증권사가 운용 포지션을
설정하기에 까다로운 수밖에 없었던 상
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사들이 평
균 운용하는 채권 규모는 20조원가량으
로, 보유 채권 규모가 큰 대형사일수록 손
실 규모도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선제적으로 채권 운용 손실을 최소
화한 회사는 호실적을 내기도 했다.

현대증권의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487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4.5% 증가
했으며, 당기순이익도 369억 원으로 17.9
% 늘었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KB운용, 글로벌 농업기업 투자하는 ETF 출시

KB자산운용은 글로벌 농업 관련 핵심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KB
STAR 글로벌농업경제MV ETF’를 출시
한다고 26일 밝혔다.

글로벌 농업경제 지수를 추종하는 이
ETF는 농업 관련 매출 비중이 50% 이상
인 종목에 투자한다. 종자·식량 생산 기업,
비료·화학제품 생산 기업뿐만 아니라 농기
계 제조, 유통 가공 기업 등을 아우른다.

현재 포트폴리오에는 글로벌 1위 동물약
품 기업 조에티스(9.58%), 글로벌 농기계
시장 점유율 1위 디어(7.49%), 농약·종자
기업 바이엘(7.00%) 등으로 구성됐다.

금정섭 KB자산운용 ETF마케팅본부
본부장은 “농산물 가격의 고공행진은 당분
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글로벌 증시
가 조정을 보인 지금이 투자할 기회”라고
전했다. 김예슬 기자 viajeporlune@

정제마진 손익 분기점 아래로... 하반기 먹구름 낀 정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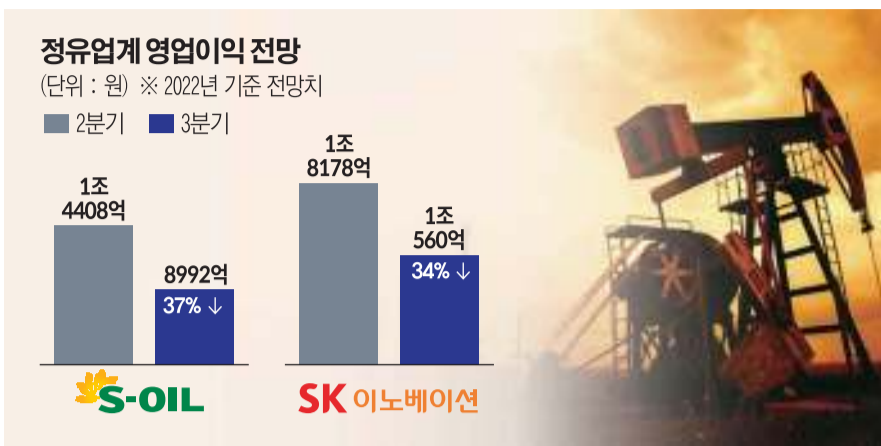
정제이윤 손익분기점 4~5달러 산업수요 감소에 3.9달러 그쳐

겨울철 '에너지 대란' 가능성에 등유·경유 수요 확대 반등 기대

정유사의 이익지표 가운데 하나인 '정제이윤'이 손익분기점 아래로 떨어졌다. 상반기 '역대급 호황'을 앞세워 분기 기준 영업이익 최대치를 갈아치웠던 정유사가 하반기에는 산업 수요 감소 여파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6일 정유업계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정제이윤은 3.9달러에 그쳤다. 지난달 넷째 주 29.5달러를 기록하며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약 한 달 만에 약 86%가 급락한 셈이다.

정제이윤은 정유사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다만 4~5달러를 이익의 마지노선으로



본다는 게 통상적이다. 정제이윤이 4~5달러를 넘어서면 수익이, 그 이하면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올해 들어 국제정세와 지정학적 요인 등에 따라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정제이윤은 꾸준히 5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7월 들어 3.9달러에 그친 것은 정유업계 호황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제이윤 하락은 물가상승과 휘발유 가

격 상승에 따른 산업 수요 감소가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6월 말~7월 초 미국 휘발유 수요는 하루 873만 배럴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유사한 수준이다. 2001년과 2013~2014년 사이 국제유가가 고공행진 당시보다 낮은 산업 수요다.

산업 수요가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재고가 증가했고, 이는 곧 정제이윤 하락으로

이어졌다.

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휘발유 재고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특히 미국 정제설비 가동률은 93.7%로 낮아졌음에도 미국 휘발유 재고는 2주 연속 상승해 약 3개월 내 최대치까지 증가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렇듯 정제이윤이 급락하면서 정유사의 하반기 실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날 기준 S-Oil(에스오일)의 3분기 영업이익은 8992억 원으로 전 분기 영업이익 전망치인 1조4408억 원보다 무려 3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SK이노베이션 역시 같은 기간 약 34% 감소한 1조560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정유업계에서는 최근 현대오일뱅크가 기업공개(IPO) 계획을 철회한 것도 이런 불안정한 시장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전용진 하이투자증권 연구

원은 "정유업계의 초호황이 하반기부터 점차 하향 안정화되고, 향후 수년 내에 이보다 더 좋은 시황 출현을 기대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분석했다.

정제이윤의 반등을 점치는 시각도 존재한다. 올겨울 '에너지 대란' 가능성을 제기한 지료가 속속 등장하자 등유와 경유 수요 증가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등·경유의 수요 증가는 자연스럽게 정제이윤의 반등을 불러올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정유업계를 겨냥해 "초과이익 환수" 목소리를 확대하자 이에 맞서 "실적하락 우려"를 내비치며 선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내놓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기 침체 우려로 산업 수요가 감소하며 정제이윤이 하락했다. 유류를 중심으로 심화된 에너지 수급난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수익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섭 기자 citizen@

'중후장대 현장' 끊이지 않는 夏鬪 파열음

국가 기간산업인 중후장대(철강·조선·중공업 등의 제조업) 현장 곳곳에서 노조 리스크가 확산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사태 당시 윤석열 정부의 노정관계 방향점이 드러난 이후 현대제철 등에서도 파열음이 감지된다.

26일 산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현대제철지회 소속 노조원 10여 명은 86일째 당진제철소 사장실을 점거 중이다.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은 5월 2일부터 3개월 가까이 당진제철소 사장실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당진제철소는 고로 3기와 전기로 2기를 통해 현대제철의 조강 생산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현대제철 순천과 포항, 인천, 당진하이스코 등 4개 지회도 일제히 공장장실을 점거했다. 현대제철 울산공장은 지난 20일 12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가동을 멈추기도 했다. 노조는 지난 3월 현대차와 기아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격려금 400만 원을 똑같이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제철 측은 지난해 하반기 임금협상에서 성과급(기본급의 200%+770만 원)을 이미 지급해 특별격려금을 별도로 주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다. 현대제철은 사장실을 불법 점거한

현대제철 노조, 특별격려금 요구 86일째 당진제철소 사장실 점거

올해 임단협 돌입한 현대중조선3사 공동교섭 노사 이전

노조 집행부 약 50명을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고소했고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파업의 여파는 계속된다. 현대제철은 이날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20만t의 출고 차질이 있었다"고 밝혔다. 결국 2분기 판매량은 전분기 대비 1.9% 감소했다.

현대중공업 노사 역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이날부터 이틀간 노조 요구안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현대중공업그룹 조선3사와 사측의 공동교섭을 요구하며 공동요구안을 제시했다.

조선 3사의 공동요구안은 적잖은 걸림돌이다. 3사 노조는 그간 작업의 성격이 같은데도 매년 단체교섭 때마다 각자 임금 인상 규모 등이 달랐다는 점이 지적됐다. 나아가 교섭 진행도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현대중 노사는 2019년과 2020년 2년 임금협상에서 난항을 겪다 올해 초 겨우 합의에 성공했다. 그 탓에 올해 교섭이 예년보다 3개월가량 늦어졌다.

8월 초부터 진행되는 하계 휴가를 마친 뒤 본격적인 교섭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노조 측이 올해 요구한 기본급 14만2300원(호봉등급별 별도) 인상에 대해 사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호봉등급을 제외하고 기본급 인상 요구안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교섭이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총 8165억 원의 손실을 내며 일 단락된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도 향후 관련 산업계 전반에 부정적 여파를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당시 정부의 입장이 향후 윤석열 정부 노정관계의 가능성 역할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이 이날 공식 사과문을 내고 '(사태 해결 과정에 대해)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했다'고 밝힌 것처럼 정부 또한 사실상 같은 기조다.

업계 관계자는 "중후장대 산업의 이중 근로 구조, 저임금 등 고질적인 문제를 방치한 채 강대강 대치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삼성전자 '비스포크 큐커 썸머 페스티벌' 행사 현장. 삼성전자가 국내 대표 여름 브랜드인 '삼진어묵'과 함께 '비스포크 큐커 썸머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2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삼진어묵 부산역광장점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부산을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비스포크 큐커 체험뿐 아니라 특별한 혜택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현대차·기아 '역대급 실적' 부품 계열사는 '울고·웃고'

운송비·반도체 가격 상승 등 영향 현대모비스, 영업이익 28.4% 급락

현대위아, 사륜구동 시스템 호조 매출 줄었지만 영업이익 17.6% ↑

현대자동차·기아가 나란히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계열 부품사 실적은 희비가 엇갈렸다. 26일 현대차그룹 부품 계열사인 현대위아는 2분기 실적으로 매출 1조9718억 원, 영업이익 531억 원을 발표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이 17.6% 늘어나며 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현대위아는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해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다소 줄어든 것은 원자재 공급난 등의 영향으로 완성차 판매량이 다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며 "이올러 리시야법인의 가동 중단이 이어진 것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고부가가치 상품인 사륜구동(4WD) 시스템의 판매가 지속해서 호조를 보였고, 고환율로 외환 손익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 및 당기 순이익의 급등을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현대위아가 시장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의 '큰 형님'인 현대차·기아와 실적 괴리는 여전하다. 현대

차와 기아가 지난주 사상 최고 수준의 분기 실적을 기록한 반면 부품사들의 실적은 제각각이다. 지난 22일 올해 2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한 현대모비스가 대표적이다.

현대모비스는 올 2분기 경영실적으로 매출액 12조3081억 원, 영업이익 4033억 원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은 19.7%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겨우 28.4% 급락했다. 현대모비스는 "전동화 부품 매출 증가와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 공급을 늘린 것이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면서도 "반도체 가격 상승과 지속적인 운송비 부담이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시장 전망과 대응에서는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현대차·기아는 물론 현대위아와 모비스 등은 △지정학적 리스크 △코로나19 재확산세 △원자재 및 운송비 부담 등을 불확실한 경영 요인으로 꼽으며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적극적 수주 활동 등으로 수익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달리 현대차는 이번 2분기 매출 35조9999억 원, 영업이익 2조9798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2분기보다 매출은 18.7% 늘어났으며, 영업이익은 무려 58.0% 증가했다. 기아의 경우 2분기 실적으로 매출액 21조8760억 원, 영업이익 2조2341억 원을 발표했다.

이민재 기자 2mj@

LG엔솔-中 화유코발트, 배터리 재활용 합작법인 설립

니켈·리튬 등 양극재 원료 추출 난징 배터리 생산공장에 공급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1위 코발트 정련업체 화유코발트와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JV)을 설립한다.

26일 LG에너지솔루션은 화유코발트와 손잡고 폐배터리 등에서 핵심 원재료를 추출하는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화유코발트는 중국 최대 코발트 생산 업체이다. LG화학과는 2019년 중국 취저우시에 연구개발 합작사 및 우시시에 양극재 합작사, 2022년 한국 구미에 양극재 합작사를 각각 설립했다. 이번 합작사는 중국 내 최초의 한·중 합작 배터리 리사이클 기업이다.



LG에너지솔루션 중국 공장.

양사는 올해 안에 운영 방안 등 세부 내용을 협의해 합작법인 설립을 최종 완료한다.

합작법인은 배터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스크랩(Scrap)과 수거된 폐배터리 등에서 양극재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리사이클 니켈, 코발트, 리튬을 추출한다. 추출한 메탈은 양극재 생산공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난징

배터리 생산공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스크랩을 처리하고 폐배터리를 가공하는 전(前)처리 공장은 LG에너지솔루션 생산공장이 위치한 중국 장쑤성 난징시에 세운다. 재활용 메탈을 처리하는 후(後)처리 공장은 화유코발트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중국 저장성 취저우시에 설립할 계획이다.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최고경영자(CEO) 부회장은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을 위해서는 배터리 전생애주기를 관리하는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력은 배터리 리사이클 역량 확보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의 원재료 공급 안정성 및 원가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ESG 경영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대섭 기자 citizen@

‘쓰다→그리다’... 모나미, 펜의 쓰임새 재정의

학령인구 감소에 위기 의식
단순 필기구 너머 다양성 제시
‘그림 그리다’ 영역으로 확장
유튜브·오프라인 클래스 운영



모나미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 콘텐츠 ‘그리고 왔습니다’ 시즌2에서 한 작가가 모나미 제품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고 있다.

문구기업 모나미가 필기구를 판매하는 기업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사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주요 고객층인 학령인구가 줄어들자, 단순 필기구였던 모나미 제품을 ‘표현하는 도구’로 재정의한 것이다. 펜의 다양한 용도를 제시한 모나미는 새로운 시장 확대를 위해 관련 콘텐츠를 생산하고 체험형 오프라인 매장을 만드는 등 사업 다각화를 펼치고 있다.

26일 문구업계에 따르면 모나미는 필기구였던 펜을 표현하는 도구로, ‘그리다’의 영역으로 확장했다. 기존 ‘쓰다’의 개념인 필기구의 패러다임을 바꿔 주요 고객층을 10~20대인 학생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했다. 경쟁사도 문구업계가 아닌 취미 관련 카테고리의 브랜드로 확대했다. 모나미 관계자는 “새로운 관점에서 모나미의 이야

기를 풀어 나갈 수 있게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나미가 기존 문구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 때문이다. 2020년 통계청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2017년 846만 명에서 향후 10년간 190만 명이 감소할 전망이다. 2067년에 364만 명 수준으로 예측된다. 펜을 주로 사용하

는 학령인구가 감소 추세로 돌아서자 문구업계는 위기의식을 느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나미는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문구 프랜차이즈 사업과 디지털 프린트 사업, 교육 사업 등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일반 기업들과 함께 기존 비즈니스와 연관된 신사업 모델을 구상한 것이다. 하지만 경

영 트렌드에 휩쓸려 상황에 쫓기듯 기획한 신규 비즈니스는 난항을 겪었다. 결국, 학령인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뚜렷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모나미는 반복되는 학령인구 문제에서 탈피하기 위해 신사업을 찾기 대신 필기구의 본질에 몰입표를 던졌다. 더욱 확장된 사고로 펜의 주된 역할을 ‘쓰기’가 아닌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로 바라봤다. 이렇게 펜을 재정의하자, 학령인구 감소가 더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펜의 다양한 용도를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으로 확대도 가능했다.

모나미는 고객이 펜의 본질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경험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뻗은 문구점이 아닌 체험형 매장인 ‘모나미 스토어’를 선보였다. 2015년 홍대 1호점을 시작으로, 합정동,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에버랜드, 부산 롯데백화점, 최근 성수동까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을 오픈했다. 제품이 아니라 경험을 파는 개념으로 생겨난 모나미 스토어 성수점은 실제 오픈 당시 방문객 1000여 명이 몰렸으며 일 평균 400~500명의 방문객이 매장을 찾았다.

펜을 그리다의 영역으로 확장한 모나미는 공식 유튜브 채널과 오프라인 클래스 운영하며 관련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모나미는 지난 25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 콘텐츠 ‘그리고 왔습니다’ 시즌 2를 공개했다. 그림을 그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여행을 더해 차별화된 스토리의 브랜드 영상을 제작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원데이 클래스도 약 1년 만에 재개했다. 모나미 스토어에서 운영하는 원데이 클래스는 모나미 프레스펜, 컬러트윈 브러쉬 등을 활용해 수채화, 캘리그래피 등을 전문 강사들과 함께 배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모나미 관계자는 “펜이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라면 펜으로 그림 그리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에 이르렀다”며 “생각을 표현하는 일이 꼭 글로만 가능한 건 아니므로 그림을 통해 훨씬 더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패러다임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뻗은 문구점이 아닌, 고객이 펜의 본질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 새 시장 확대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민규 기자 wildboar@

KT ‘구필수·우영우’ 인기



구현모의 ‘콘텐츠’ 통했다

국내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사진)’의 인기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TV는 물론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용자들 입에 오르내리며 올해 최대 히트작으로 자리매김한 모습이다. 총 16부작 중 절반인 8화가 방송된 현재 전국 13.1%, 수도권 15.0%, 분당 최고 시청률 16.8%를 기록하며 매주 신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다. 이 같은 인기 비결에는 드라마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며 미디어 밸류체인 구축에 집중된 구현모 KT 대표의 승부수가 통했다는 평가다.

KT는 지난해 3월 KT스튜디오지니를 출범하며 콘텐츠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후 KT는 구독형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 디지털방송 솔루션 ‘알티미디어’ 등을 인수하며 미디어 핵심 역량을

‘우영우’ 최고 시청률 16.8%
3년간 콘텐츠에 5000억 투자
“오리지널 콘텐츠 집중할 것”

갖췄다. 또 HCN과 미디어지니 인수를 통해 기존 skyTV 7개 채널을 보유하며 1300만 가입자를 기반으로 한 유료방송 사업자 입지를 공고히 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방영되는 채널 ENA는 지난 4월 KT가 콘텐츠 확산을 견인하기 위해 새롭게 론칭한 채널이다. 드라마가 방영되기 전에는 인지도가 낮은 신생 채널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15%대 시청률을 넘어서는 기적을 내놨다.

더 놀라운 점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



우’가 KT그룹의 지원을 독점한 핵심 콘텐츠가 아니라는 점이다. KT는 4월 미디어 생태계 발전 전략 발표 당시 우영우를 포함한 드라마 라인업 24종을 공개했다. KT는 이 드라마 라인업을 오는 2024년까지 방영하며 2025년 미디어·콘텐츠 매출 5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제시했다.

이 라인업에서 우영우는 2번째에 위치해 있다. 우영우보다 앞서 방영한 ‘구필

수는 없다’를 제외한다면 아직 22종의 드라마 라인업이 남아있다는 설명이다. 우영우의 후속작으로는 정일우·권유리가 주연을 맡은 ‘굿잡’이 확정돼 오는 8월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오광훈 ENA채널 콘텐츠사업본부장은 “지난 4월 ENA 리브랜딩을 통해 채널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면 이제는 채널의 성장을 굳힐 타이밍”이라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ENA채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드라마와 예능을 제작해 공격적인 편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KT의 미디어·콘텐츠 투자가 앞으로 더 공격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3년간 5000억 원의 이상의 자금 투자를 발표한 만큼 탄탄한 스토리의 작품이 더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KT는 이를 위해 넷플릭스와 같은 오리지널 콘텐츠에 집중한다. 이미 구현모 KT 대표는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창업자와 비공개 회동을 갖고 미디어·콘텐츠 부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OTT와 관련한 협력을 의논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ENA에서도 넷플릭스처럼 오리지널 콘텐츠에 집중한다. ENA스페셜로 오리지널 드라마 편성도 확장해 첫 번째 작품인 밀리터리 드라마 ‘신병’의 방영을 시작했다. 구독자 315만명 이상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장빠썬에서 제작한 동명의 작품을 실사화한 작품으로, KT는 다양한 드라마의 방영을 통해 채널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성준 기자 tiatio@

SKT, 화신 손잡고 ‘웰딩 AI 솔루션’ 상용화

인더스트리얼 AI 박차

SK텔레콤은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업체 화신과 손잡고 ‘웰딩 AI 솔루션’ 상용화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용접 품질을 관리하는 AI기술을 통해 인더스트리얼 AI 사업 확대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인더스트리얼 AI란 산업 현장의 전문성과 AI기술을 결합해 생산 공정의 완전 자동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 딥러닝 기반 AI 기술을 주요 생산 공정에 적용·확대하는 사업으로 제조업 비중이 큰 국가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다.

SKT는 용접 공정에서 발생하는 내·외부 불량률 판별하는 ‘웰딩 AI 솔루션’과 고압주조 공정에서의 실시간 불량 여부를 판별하는 ‘다이캐스팅 AI솔루션’ 등의 기술을 확보하고 다양한 제조업체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 화신과 상용화 계약을 체결한 웰딩 AI솔루션은 음향 방출(Acoustic Emission) 센서와 머신 비전(Machine

Vision) 카메라 등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딥러닝 기반 AI 분석을 통해 용접 공정의 내외부 불량률 판별하는 특화 솔루션이다. 자동차의 골격에 해당하는 샤시 및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케이스, 알루미늄 부품 용접 등에 특히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는 조선·중공업 영역까지도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SKT와 함께 웰딩 AI 솔루션 상용화에 나선 화신은 이번 계약을 통해 다양한 자동차 부품 생산에 대한 품질 관리 및 공정 자동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T 역시 앞으로 웰딩 AI 솔루션 등 인더스트리얼 AI 사업 확산 및 고도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최낙훈 SKT 스마트팩토리CO(컴퍼니)담당은 “국내 1위 자동차 샤시 제조사인 화신과의 협력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제조 경쟁력 근간인 뿌리 산업 분야의 다양한 업체들과 지속 협력을 넓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프리미엄 시장 석권 시몬스, 100만~300만원대도 두각

홈쇼핑 온라인 라방에서 완판

15년 무상보증·무이자 할부 호응

시몬스 침대가 프리미엄 시장에 이어 100만~300만 원대 매트리스 시장에서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몬스 침대의 200만 원대 제품인 ‘자스민’은 지난달 진행된 현대홈쇼핑 온라인 라이브 방송에서 완판을 기록했다. 100만 원대 제품인 ‘마르코니’도 동반 인기를 끌고 있다.

시몬스 침대는 일명 호텔 침대로 유명하다. 국내 5, 6성급 특급호텔 침대시장에서 시몬스 침대의 점유율은 무려 90%에 달한다. 국내 침대 업계에서 500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 시장을 개척한 데 이어 제품 선점이 까다로운 호텔 침대시장까지 장악한 셈이다.

시몬스 침대가 국내 주요 특급호텔에 들어놓은 제품은 뷰티레스트 컬렉션 ‘지젤’이다. 지젤의 지난 5월 매출은 전월 대비 170% 이상 증가하며 가파르게 성장했다.



지난달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50% 이상 확대됐다. 쿼 사이즈 기준 362만 원인 지젤은 레귤러 타입의 매트리스로 ‘스몰 서클 포켓스프링’이 사용돼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스프링을 내장한다. 촘촘하고 섬세한 지지력을 갖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상단부에 ‘플러시 필로우탑’이 배치돼 신체 하중을 흡수하고 분산시킨다.

시몬스 침대 관계자는 “프리미엄 시장을 석권하면서 업계 경쟁이 가장 치열한 100만~300만 원대 매트리스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상 보증 15년(포켓스프링), 최대 36개월 장기 무이자 할부 같은 요인들도 시몬스 침대의 인기를 높이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말

했다. 실제 국내 매트리스 시장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수면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수면시장 규모는 3조 원 넘었다. 2011년 4800억 원에서 10년 만에 6배 넘게 성장했다. 이 중 매트리스 시장 규모는 1조8000억 원으로 연내 2조 원 수준까지 몸집을 불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유통 기업, 렌탈 업체 등이 줄줄이 매트리스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다.

시몬스 침대가 이런 경쟁 속에서도 두드러진 성장을 보이는 데에는 구매 장벽을 낮추는 시몬스페이 영향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시몬스페이는 최대 36개월까지 장기 카드 무이자 할부를 활용할 수 있는 구독경제 멤버십 서비스다. 시몬스페이를 적용하면 지젤은 매월 7만7000원 정도의 정액 요금을 내면 된다. 100만 원대 모델인 마르코니는 월 5만5000원, 200만 원대 자스민은 월 6만5000원, 300만 원대 엘리너는 월 8만8000원 정도로 소비자 진입장벽까지 크게 낮추고 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ESG로 만들어 가는 따뜻한 세상

탄소 배출은 줄이면서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고
 맑은 하천과 공원이 어우러진 도시를 만들면 어떨까요

에너지 소비를 줄인 주택을 지어 주거부담을 낮추고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면 어떨까요

ESG로 만들어 가는 따뜻한 세상
 NH가 앞장서겠습니다



편의점 “자가진단키트 할인”

CU 20% 인하 4000원에 판매
세븐일레븐·GS25 '2+1' 행사

코로나바이러스가 재확산하면서 편의점 업계가 자가진단 키트 판매 할인 행사에 일제히 돌입했다.

CU는 자가진단키트의 가격 인하를 전격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가격 인하는 20%로 1입짜리는 기존 5000원에서 4000원, 2입짜리는 기존 1만원에서 8000원에 구매 가능해진다.

CU의 자가진단키트의 지난주(18~24일) 매출은 전주 대비 126.6%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CU가 자가진단키트의 가격을 인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올해 초 전국의 모든 편의점에서 자가진단키트 판매했을 때 4월 판매 가격 제한 조치가 풀리자마자 가장 선제적으로 가격을 내려 국민 부담을 낮추는 데 앞장섰다.

세븐일레븐도 27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2+1'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상품은 '휴마시스 코비드19 홈테스트 2입(1만2000원)'으로 행사 적용 시 한 세트당 33% 할인된 8000원에 구매하는 셈으로, 개당 6000원 하는 상품을 4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세븐일레븐의 자가진단키트는 매출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달 2주차(11~17일) 자가진단키트 매출은 전주 대비 2배 오른 데 이어, 지난주(18~24일)도 2.1배 증가했다.

앞서 GS25 역시 코로나검사키트 2+1 행사에 나섰다. 지난 25일부터 8월 말까지 △래피젠코로나19자가검사키트2입(1만 원) △PCL코로나19타액검사키트2입(1만3000원) 등 코로나 검사키트 2종 상품을 대상으로 2개 구매 시 1개를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김혜지 기자 heyj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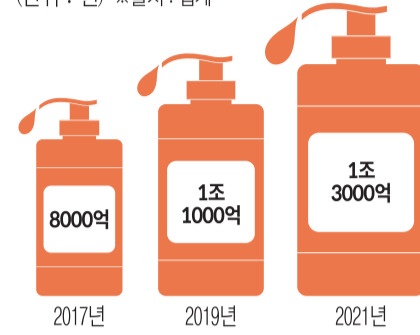
탈모·새치 고민 커진 MZ 겨냥 치열해진 '1.3조 헤어케어 시장'

신세계인터 첫 자체 헤어 브랜드
탈모 증상 완화 '아이엠' 론칭
LG생전 '리엔 물들임 새치커버'
아모레퍼시픽 '려...블랙' 등 경쟁

신세계인터내셔널이 탈모 증상 완화 샴푸를 앞세워 헤어케어 시장에 뛰어 들었다. 국내 화장품 업계 투톱인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도 최근 새치커버 샴푸를 선보였다. 피부만큼 두피에도 관심이 높은 MZ세대의 소비패턴에 힘입어 국내 헤어케어 시장은 1조 3000억원 규모로 성장한 만큼 헤어케어 시장에 뛰어드는 업체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은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브랜드인 '저스트 에즈 아이엠'(JUST AS I AM, 이하 아이엠)을 론칭

국내 헤어케어 시장 규모
(단위: 원) *출처: 업계



한다고 26일 밝혔다. 브랜드 출시와 함께 선보이는 제품은 샴푸 2종, 트리트먼트, 토닉 등 4종이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이 자체 헤어케어 브랜드를 선보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모든 제품은 자체 독자 기술로 개발한 두피 환경 개선 특허 소재와 모근 강화에 도움이 되는 유효 성분 등을 주원료로 한다. 임상 시험을 통해 탈락 모발 수 개선을 68% 등 탈모 증상 개선을 입증했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은 감각적인 탈모 케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철저히 MZ세대를 정조준했다. 제품에는 '엠버 머스크'나 '무화과 플로럴' 등 향수에 버금가는 고급스러운 향을 담았다. 용기는 심플하면서도 육질 인테리어나 임팩트를 줄 수 있도록 제작했다. 브랜드 모델도 MZ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 비비(BIBI)를 발탁했다.

주요 화장품 업체들도 탈모와 염모 기능을 담은 헤어케어 제품을 앞다퉀 선보이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5월 '리엔 물들임 새치커버 샴푸'와 '리엔 물들임 새치커버 트리트먼트' 등 2종을 출시했다. 손톱에 봉숭아 물을 들일 때 주황색 염료가 선명하고 오래가도록 백반을 사용하는 원리에

착안해 개발한 제품은 머리를 감는 것만으로 새치커버가 가능하다. 이 제품은 검은 콩과 검은깨 추출물, 홍화꽃과 치자성분이 함유돼 모발에 염료를 단단히 결합해주는 역할을 하는 '블랙틴트 콤플렉스'를 함유한 것이 특징이다. 사용 방법이 간단하다. 일반 샴푸나 트리트먼트와 동일하게 거품을 내 머리를 마사지하고 3분동안 방치 후 씻어내면 된다.

아모레퍼시픽도 4월 머리를 감으면 염색효과를 볼 수 있는 새치커버 샴푸 '려 더 블 이펙트 블랙'과 트리트먼트 제품을 선보였다. 한방 유래 성분이 함유된 블랙 토닝(Black Toning) 성분이 새치 커버 성분을 모발 표면에 달라붙게 하는 이 제품은 두피 자극과 모발 손상에 대한 부담을 줄여 독일 더마 테스트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출시 초기에는 제품이 완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토니모리는 작년 기능성 클린 뷰티 브랜드 튜나인(Tune9)을 선보이며 '내추럴 체인지 컬러샴푸'를 내놓았다.

여러 업체들이 탈모·염모 샴푸를 내놓을 정도로 국내 헤어케어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헤어케어 시장은 2017년 80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 3000억 원까지 커졌다. 특히 헤어 관리에 대한 MZ세대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탈모 진료 받은 환자 수는 23만 명이며 이 가운데 20~40대가 65.9%를 차지한다.

업계 관계자는 "탈모·새치 시장이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만큼 MZ세대를 겨냥한 헤어 케어 제품은 앞으로도 계속 출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세움EAP는

행복하고 건강한 기업 및 가족 문화를 위하여,
최적화된 교육 프로그램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멘탈헬스케어 전문기업입니다.

근로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학교 심리상담
프로그램

상담사 교육양성
프로그램

백화점도 내달 1일부터 추석선물 사전예약

한우·와인·건기식 등 할인 판매

대형마트에 이어 백화점 업계도 일제히 추석선물 예약 서비스에 돌입한다. 백화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귀성 선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사전 예약 판매 물량을 지난해보다 늘렸다.

롯데백화점은 8월 1일부터 18일까지 전점에서 추석 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이번 사전 예약 판매에서는 총 170여 품목을 선보인다. 축산, 과일, 수산 등 신선식품 60여 종과 건강식품 40여 종, 주류 20여 종, 가공식품 50여 종 등을 준비했으며, 주요 상품의 할인율은 축산 10~15%, 수산 20%, 청과 10~55%, 와인 10~20%, 건강 식품 30~50% 등이다.

대표 상품으로는 1++ 등급 한우의 다양한 부위를 구이와 스테이크로 즐길 수 있는 '한우 명품 로스 GIFT' 상품과 등심과 채끝, 부챗살로 구성된 '로얄 한우 로스 GIFT' 상품을 15% 할인가에 판매한다. 수산 선물세트인 '영광 범성포 굴비 GIFT 갑(坎)'과 '영광 범성포 굴비 GIFT 천(川)' 그리고 청정 해역 완도에서 키운 '완도 활전복 행복 GIFT' 등의 수산 상품을 20% 할인 판매하며, 최근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건강식품 선물세트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신세계백화점은 8월 1일부터 21일까지 총 21일간 2022년 추석 선물세트 예약 판매에 나선다. 예약 판매 품목은 배, 사과, 귤 등 농산 35품목, 한우 등 축산 32품목, 굴비, 갈치 등 수산 29품목, 건강식품 60품목 등 총 230여 가지다.

주요 품목 할인율은 한우 5~10%, 굴비 20%, 와인 60%, 건강식품 60%가량이다.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 상황에 맞춰 10만 원대 이상 상품도 지난 추석보다 10% 늘린 100여 개의 품목을 준비했다.

다음 달 7일까지 SSG닷컴 신세계백화점몰에서도 추석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현대백화점도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2022년 추석 선물세트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행사는 압구정본점·더현대서울·충정점·울산점 등 4개 점포와 공식 온라인몰 '더현대닷컴', '현대식품관 투움'에서 먼저 시작한다. 다음달 8일부터는 무역센터점·목동점 등 전국 16개 전점포에서 열린다.

김혜지 기자 heyji@

사업 전담팀 만들고, 경쟁사와 손잡고 대형건설사 '리모델링 수주대전'

한화, 엠창동 '무학' 우선협상자에 대우, 리모델링TFT→사업팀 격상 롯데·현대, 암사동 '선사현대' 수주 정부 규제 완화에 사업 진출 잇따라

건설사 별 리모델링 사업 전담팀 구성일

롯데건설	2021년 12월
한화건설	2022년 1월
대우건설	2022년 3월

※ 출처: 각 건설사

리모델링 사업 수주에 대형건설사들이 열을 올리고 있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에 역량을 집중해왔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향후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함께 사업 분야를 다각화하고 있다.

2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한화건설은 8월 초 서울 강서구 엠창동 '무학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9월 말 총회를 거쳐 시공권을 따낼 예정이다. 수주에 성공하면 한화건설 창립 이래 첫 단독 리모델링 사업 수주가 된다. 1월 리모델링 전담팀을 구성한 지 6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리모델링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전담팀을 만들었다.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더 큰 리모델링 사업에 도전할 것"이라며 "최근 재건축 부담금을 수억 원 맞은 아파트가 나오면서 앞으로 리모델링으로 시장이 기울어지고,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초

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 추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건설업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기 신도시의 경우 이미 용적률이 높은 단지가 많은 만큼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자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리모델링은 사업 규모가 크지 않고 재건축·재개발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건설사들로부터 외면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대형 건설사들이 리모델링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5위 대우건설은 지난해 신설한 리모델링 TFT(태스크포스팀)를 올해 3월 리모델링 사업팀으로 격상시킨 효과를 보고 있다. 11일 기준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2조2006억 원 가운데 리모델링 사업 수주액은 절반이 넘는 1조 1433억 원이다. 지난달 18일 경기 안양시 '초원한양아파트'를 시작으로 2일 서울 송파구 '거여5단지아파트', 9일 경기 수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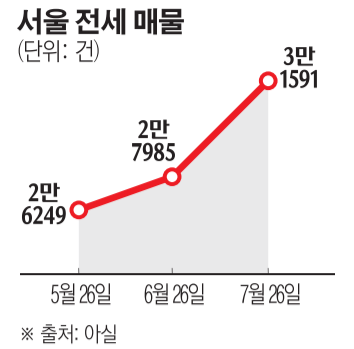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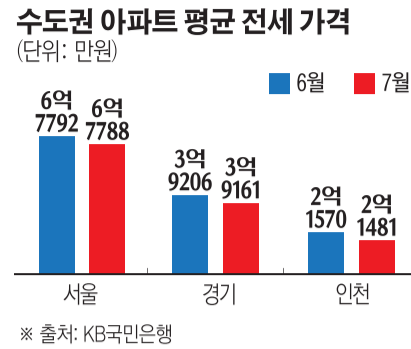
'두산우성한신아파트' 등 3곳의 리모델링 사업권을 따냈다. 특히 대우건설은 리모델링 사업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아파트 리모델링 특화 평면'을 개발했다.

롯데건설(시공능력평가 7위)도 지난해 12월 전담부서를 신설해 리모델링 사업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월 현대건설과 함께 수주한 서울 강동구 '선사 현대 리모델링 사업'은 1조900억 원 규모로 국내 리모델링 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받는다. 이중 롯데건설 수주액은 5561억 원이다. 앞서 1월에는 서울 강남구 '청담 신동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시공권을 따내며 리모델링 시장에서 순항하고 있다.

리모델링은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절차가 간소하고 사업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절차가 간단하다. 재건축 연한은 30년이지만 리모델링은 15년"이라며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는 재건축으로 가면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 있다. 그럴 때 리모델링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건설사 입장에서 리모델링 사업의 수익성이 낮다고는 하지만, 재건축을 수주하는 게 어려운 만큼 또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영 수습기자 ksy2291@



39개월만에 떨어진 서울 전셋값 '8월 전세대란' 우려 사그라질까

평균 6억7788만원... 소폭 하락 수도권도 37개월 만에 하락 전환 대출 금리 크게 오르자 수요 폭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하락했다. 매물은 늘고 있지만, 전셋값 급등, 금리 인상 등 금융 부담이 커지자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8월 갱신된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 등장으로 우려됐던 전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이달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7788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달 6억7792만원 대비 소폭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떨어진 건 2019년 4월(4억6210만 원) 이후 39개월 만이다.

강북 14개 구 평균 전셋값은 지난 달 5억6066만 원에서 이달 5억6059만 원으로, 강남 11개 구는 7억8820만 원에서 7억8809만 원으로 각각 떨어졌다. 같은 기간 수도권 평균 전셋값 역시 4억6920만 원에서 4억6846만 원으로 37개월 만에 하락 전환됐다. 경기도는 6월 3억9206만 원에서 7월 3억9161만 원, 인천은 2억1570만 원에서 2억1481만 원으로 각각 떨어졌다.

실제로 최근 곳곳에서 전셋값 하락 거래 사례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도곡동 '도곡역' 전용면적 84㎡형은 이달 12억6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 아파트 해당 평형은 지난달 13억6500만 원에 전세 거래됐다. 한 달 새 1억500만 원이 하락한 보증금에 거래된 셈이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114㎡형은 이달 보증금 11억3400만 원에 전세 거래됐다. 해당 평형 직전 거래됐던 5월 15억 원과 비교하면 3억6600만 원 하락한 가격에 계약을 맺은 것이다.

강남구 도곡동 A공인 관계자는 "최근 금리가 크게 인상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 거래를 꺼리는 분위기"라며 "전세보다는 월세나 반전세를 선택하면서 매물만 쌓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3만1591건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인 2만7985가구 대비 3606건 약 10% 늘었다.

금융당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전세 대출금리도 크게 오르자 전세수요가 줄어든 탓이다. 16일 기준 국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 금리는 연 4.100~6.218%로, 12년 만에 6%대를 넘었다.

전문가들은 전세 물량이 쌓이고, 가격도 내림세로 접어들면서 우려됐던 8월 전세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임대차법 시행 2년이 지나 갱신권이 사용된 매물들이 8월부터 가격을 키워 등장해 전셋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제는 '전세 대란'이 아니라 '역전세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전세자금대출을 빌렸을 때 이자가 월세를 뛰어넘다 보니 월세화에 대한 부작용과 '강동전세'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소규모정비 '5년 소유·3년 거주' 땀 조합원 양도 허용

가로주택정비 증수제한도 완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규제가 완화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증수제한이 사라지고, 소유 5년, 실거주 3년 요건을 채운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소규모주택 정비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1가구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소유·거주요건 기준을 마련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을 5년 이상 소

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증수제한 규정도 완화한다.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증수를 제한할 수 있어 서울, 경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물의 증수를 1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새 시행령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5층 이하의 범위에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의 너비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증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국토부가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15층 이하

규제를 풀면 서울시도 해당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예고했다.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절차를 구체화한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하고,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표자가 창립총회를 소집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창립총회에서 조합의 정관을 확정하고, 조합 임원과 대의원을 선임하도록 했다.

사업시행구역 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도 추가한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 외에도 가설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용도변경, 이동이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도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추가했다.

이동욱 기자 toto@

'수원 아이파크 시티' 10·11·12단지 내달 분양

아파트·주거용오피스텔 557가구

HDC현대산업개발은 '수원 아이파크 시티' 10·11·12단지 분양을 다음 달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원 아이파크 시티 10·11·12단지는 아파트 128가구와 주거용 오피스텔 429실 등 총 557가구 규모다. 10단지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일대에 지하 2층~지상 14층, 3개 동 128가구 규모 아파트로 들어선다.

모든 평형은 전용면적 84㎡형으로 구성된다. 11·12단지는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일대에 지하 4층~지상 13층, 총 8개 동 규모 주거용 오피스텔로 건설된다. 11단지는 208실, 12단지는 221실 규모로 전용

55~84㎡형으로 구성된다. 이 단지 지하 1층~지상 2층에는 약 1만1000평 규모의 대규모 상업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수원 아이파크 시티는 약 30만 평 부지에 공동주택, 주상복합, 단독주택 등 총 7000여 가구 규모의 주거 및 상업시설, 공공시설, 도서관, 생태공원 등이 어우러진 민간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2009년 부지 동측의 1·3단지 공급부터 이번 서측 부지의 스트리트형 상업시설들이 함께 들어서는 12단지까지 입주가 완료되면 수원 아이파크 시티 단지 내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수원 아이파크 시티 10·11·12단지는 장다리천을 따라 친환경 주거 라이프와 스트리트 쇼핑 라이프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교



육 환경 또한 뛰어나다. 반경 500m 내에 남수원초, 권선중, 곡정고가 있다.

지하철 1호선 세류역이 단지 서측 도보권에 있어 수원역 KTX, 수인분당선, GTX-C(예정)노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수원 버스터미널과 가깝고, 오산·용인고속도로 세류IC도 곧 건설될 예정이다.

수원 아이파크 시티 견본주택은 수원 권선구 권선동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며 다음 달 개관한다.

정용욱 기자 dragon@

코로나 영향...수요·투자문의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거점 오피스 문화가 확산하자 '섹션·프리미엄 오피스' 시장이 그 효과를 누리고 있다.

거점 오피스란 기업이 각 지역에 거점을 두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직원들은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해 근무지를 선택할 수 있다. 코로나19 기간 재택근무를 도입했지만, 업무 처리에 한계를 느끼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새롭게 떠오른 근무 형태다.

재계에서는 SK, 현대자동차, 현대카드 등이 거점 오피스를 도입하고 있다. 현대건설도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거점 오피스 '하이워크' (Hi-Work)를 마련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이처럼 본격화된 거점 오피스 마련에

최적화된 사무공간으로 섹션 오피스가 주목받고 있다. 소규모 형태로 조성되는 데다 모듈형으로 설계해 사용자 필요에 맞게 크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편리함과 업무 효율까지 고려한 프리미엄 오피스도 인기다. 쾌적한 근무 환경을 원하는 수요가 북층 설계로 더 넓은 실사용 면적을 제공하거나, 탕비실·의류관리기·냉난방기 등 풀퍼니시드 시스템을 도입한 오피스를 찾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문화의 변화로 소규모 오피스를 찾는 기업체 수요가 풍부해지면서 시장에서는 관련 투자 문의가 갈수록 늘어나는 분위기"라며 "섹션 오피스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전매제한 등 규제가 없어 투자자들 사이에서 알짜 투자처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전환점 맞는 공보 규정

한동훈이 부활시킨 '티타임'... 중대사건 국민에 공개하나

언론 오보에는 적극 대응
대부분 '조국' 이전으로
포토라인 금지는 계속

검찰 수사사건에 대한 언론의 취재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형사사건 공보규정 개정을 예고했고, 법무부는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반영한 새 공보규정을 만들었다.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은 2019년 조국 전 장관 시절 법무부가 검찰개혁은 물론 인권 침해는 막는다며 시행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대부분을 '그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채워졌다.

새 공보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정부 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

나 '사회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등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으로 정한 중요 사건의 경우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면 공개할 수 있다. 언론의 오보,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토록 했다.

조 전 장관 시절 폐지된 차장검사와의 '티타임'도 다시 생겨난다. 전문공보관 설명으로 부족하거나 사건 내용이 복잡할 때, 사건 담당 차장검사가 소속 검찰청장 승인을 받아 구두로 형사사건을 설명한다. 지정된 장소에서 사건 쟁점이나 수이거나 언론 요청이 있는 등 제한적인 조건을 달아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취지로 이뤄질 방침이다. 다만,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포토라인은 계속 금지된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각 검찰청에 전문공보관을 두고 언론과 검사, 수사관의 개별 접촉을 금지했다. 전문 공보관만이 사건을 설명하고 언론의 물음에 대응할 수 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었다. 인권보호가 명분이었지만, 취재하는 기자로서는 취재 내용을 물어볼 곳도, 물어볼 방법도 없었다. 한마디로 언론은 검찰이 불러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수사 검사 역시 수사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각 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으로부터 내사까지 받아야 했다.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한 시민단체는 '국민 알권리와 전

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새 공보규정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오간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검사는 "지난 2년간 검사와 기자가 소통이 완전히 단절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며 "언론이 사건관계인을 직접 취재 보도로 이어지더라도 사실과 다른 기사가 나갈 수 있다. 수정이 필요해도 소통 창구가 닫혀 답답한 일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차장검사가 진행하는 티타임으로도 중요 사건에 대한 설명은 충분할 것"이라고 했다.

공보 규정이 달라지더라도 조 전 장관 이전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도 있다. 한 부장검사는 "수사 중인 검사는 사건 내용을 말하지 않는 게 맞다"며 "될 수 있으면 기자나 언론 쪽 사람을 안 만나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규정에

따라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개정 취지대로 규정이 지켜질지 반신반의하는 눈초리도 있다. 이번 개정을 기점으로 과거처럼 '혐의 흘리기' 등 검찰 적폐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도. 피의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나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공개돼 '낙인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더라도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처럼 비춰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보 방식을 다양화하거나 이른바 차장검사 '티타임' 부활 등은 현실에 맞춘 공보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와 기자 개별 접촉은 물론 포토라인 금지 원칙으로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며 "알 권리 충족과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법무부가 새로 발표한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법조계에서 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주요 사건 내용을 공식적인 경로로 일부 공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공보 규정 취지가 변색할 것이라는 우려도 표출된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검사는 "현실적으로 검사와 기자 접촉을 원천봉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공보 규정이 시행되고 검사와 기자 접촉이 많이 줄었지만 '검수완박(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는 스킨십을 늘리지 않았느냐"며 "차라리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해 소통하는 기회를 얻어야 국민도 주요 사안을 파악할 수 있고 '검언유착' 등 불법

“필요한 내용은 알려야” vs “혐의흘리기 적폐 재현 우려”

요한 말이 안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언론 대상 비공개 정례 브리핑, 이른바 '티타임'이 수사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외부와 소통을 단절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보다 일부 내용은 공개해야 국민 알 권리도 충족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검사 출신인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 검사가 직접 기자를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고 언론 보도를 수사에 역이용하고 피의자 압박요인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

법조계 엇갈린 평가

의사실 공표가 아닌 범위 내에서 사건 설명을 하면 수사 공정성도 유지될 수 있다"며 "차장검사가 티타임을 진행하면 절제된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국민 알 권리 등을 이유로 공보 규정을 개정했지만 취지가 변색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검찰이 자신들의 영향력이나 이미지 등을 위해 이목이 쏠리는 내용을 '중요사건'으로 선별하는 등

규정을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중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26일 논평을 내고 "중요사건"으로 언론 요청이 있는 등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를 두고 있는 것이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중요사건" 개념이 검찰의 자체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공개할 수 있는 범위도 상제하다"며 "예외적 언론 접촉 규정까지 뒤 수사실무자가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게 설명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보 규정을 바꿀 만 한 사안이 없었는데도 법무부가 행정 일관성을 저버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승준 충북대 로스쿨 교수는 "이전에 정했던 방침이 정권이 바뀌면서 없었던 것처럼 되는 상황은 행정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규정을) 변경해야 할 정당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법무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티타임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그는 "비공식 티타임으로 피의자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만큼 공개적인 공식 브리핑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더위 날려주는 고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더운 날씨를 보인 2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생명누리공원 내 물놀이장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2학기 정상등교” 교육부 방침에 전문가·교육계 “새 매뉴얼 필요”

내달 학사운영 방안 발표
코로나 재확산세에 '우려'

교육부가 2학기에 '정상등교'를 실시하겠다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에도 새 매뉴얼 없는 학사운영 방침을 그대로 학교 현장에 이행할 것으로 보여 교육계가 우려하고 있다.

2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8월 초에 정상등교 등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2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교육부는 2학기에 '정상등교'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8월 초쯤에 관련 구체적인 대책을 담은 '2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발표 내용은 지난 코로나 2년간 교육부가 발표한 학사운영방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에 (학교 현장이) 어느정도 적응이 됐다고 판단된다. 또 방역 등에 대한 경험치가 쌓여서 (학교 관계자들이) 대응을 꽤 잘하고 있다"며 "이번 방안에는 '긴장감 있게 챙기자' 그런 정도 (메시지) 담길 듯하다. 때문에 바뀌는

내용(매뉴얼)이 딱히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과학방역'을 기조로 삼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실현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새 정부가 '과학방역'을 주장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는 '과학'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런 정책이 그간 학습격차와 학습 결손이 더 벌어진 주요 요인이 됐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 없이 무작정 '정상등교'로 풀어내려 고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학교 자율이 아닌 적확한 새 매뉴얼이 필요하다"며 "올해는 코로나 3년 차로서 교육부와 방역 당국의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우주 교수도 "코로나 3년 차에는 지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새 매뉴얼 등 업그레이드된 학교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2학기에 '정상등교'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방역당국과 협력해 다음 달 중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손현경 기자 son89@

“안심하고 불법 신고”... 공수처 ‘내부고발 안내서’ 발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직사회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내부고발 안내서'를 발간했다.

공수처는 26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내부고발 안내서'를 소개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지원 등 전반적인 절차를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고위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를 신

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부고발자의 보호·지원 방안과 처리 절차 등을 수록한 '내부고발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7월 중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각급 공공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내부고발 안내서를 통해 공수처에 신고 가능한 고위공직자와 범죄 범위를 규정했다. 또, 3월 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사건 접

수부터 처리까지의 절차도 수록했다.

신고 및 처리는 신고서 제출→접수·인계→분석·검토→사건종결→결과통지 순서로 이뤄진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지원 사항도 담겼다. 비밀보호·신변보호·신분보호(책임감면) 등의 방법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포상금과 구조금으로 지원을 돕는다는 내용이다. 이수진 기자 abc123@

“노원구 재건축 절박... 지역발전 위해 ‘초당적 원팀’ 만들 것”

오승록 서울시 노원구청장

30년 지난 노후아파트 6.7만 세대
녹물·교통체증 등 구민 고통 가중
“주민 삶 향상” 뭉치장과 뜻 같아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단 추진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양천구, 영등포구, 송파구 등 30년 전 신도시 개발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구들과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민들이 가장 원하는 1순위는 재개발·재건축이다. 조만간 신속추진단을 만들어 속도를 내겠다.”

25일 이투데이와 만난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구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원구에는 1980년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조성된 지역 특성상 30년이 경과한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아파트가 서울에서 가장 많다. 43개 단지, 6만7000여 세대가 넘는다. 2025년이 되면 73개 단지, 8만3000여 세대로 급증한다.

오 구청장은 “노후로 녹물이 나오거나

주차난에 시달리는 등 구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양천구, 영등포구, 송파구 등 30년 전 신도시 개발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구들과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에서 할 수 있는 정밀안전비용 지원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 조례를 바꿔야 한다. 오 구청장은 “정밀안전진단 비용으로 60억 원 정도가 예상되는데 재건축과 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

게 위해 투자할 것”이라며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임시방편이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재건축”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100% 구에서 비용을 지원해주면 해당되지 않는 구민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다”며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기부채납 등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환수하는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당이 다른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력에 대해 오 구청장은 “서울대병원 유치를 통한 바이오단지 조성, 재건축·재개발 등 뜻이 맞다”며 “구민들 위한 동네 발전에 대한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

민선8기 재선에 성공한 오 구청장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광운대역세권 개발, 백사마을 재개발 등 수십년간 묵혀있던 숙제의 실마리를 찾은 것을 구민들이 높게 평가해준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구민들을 위한 권역별 힐링타운 조성도 큰 성과가 있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오 구청장은 민선 7기에 경춘선, 불암산, 영출산, 수락산에 힐링타운을 만들었다. 그는 “현장에서 나가보면 노원이 최근 2-3년 사이에 많이 변했다고들 한다”며 “의도치 않게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서 집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하려는 구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로 정체된 문화사업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암산철쭉제, 탈축제, 노원달빛산책에 내년 여름 수제맥주 축제를 더해 노원만의 차별화하고 특성화한 브랜드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예술이 구민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세계적인 공연과 전시를 유치하고, 구립미술관을 건립하는 등 지역의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노원구 수락지구 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재정비안이 통과되는 희소식이 있었다. 오 구청장은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역세권의 중심부이며 의정부에서 서울 시내로 진입하는 서울시 동북방면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2018년부터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해 왔고 이번에 결실을 맺었다”고 반가워했다.

오 구청장은 “서울대병원 중심의 바이오 의료단지 조성의 밑거름을 탄탄히 준비하고 빠른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걸림돌을 제거하고 동북선 경전철, GTX-C노선 추진으로 교통도시를 완성해나갈 것”이라며 “내일이 기대되는 노원을 완성하기 위해 자연, 문화, 교육 복지 등 전 세대가 행복한 노원의 현재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박은평 기자 pepe@
김채빈 수습기자 chaebi@

‘한국의 튜베리’ 한자리에... 뭉치 “뛰어난 환경정책, 시정 반영”

‘서울, 청년이 그린다’ 개최

MZ세대 300명 모여 기후정책 발표
“재활용컵 인프라 구축” 101팀 1위

환경을 아끼는 마음을 통해 서울의 미래를 그려보고 싶어요.

26일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개최한 행사 ‘서울, 청년이 그린다’에서는 청년들의 이같은 감회가 쏟아졌다. 청년 300명은 민선 8기 시정에 주요 기후·환경 의제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팀마다 응원구호와 정책발표가

이어졌고 청년들은 박수와 환호를 아끼지 않았다.

이날 1위에 선정된 팀은 제로웨이스트 분야의 ‘101(일회용 플라스틱) 팀’이었다. 101팀은 공공기관, 대학을 중심으로 다회용 컵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용인프라를 구축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또 매달 10일을 일회용 컵 없는 날로 지정해 다회용 컵에 대한 시민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2위에 선정된 생태 분야의 ‘생태정보 통’ 팀은 폐교 부지의 운동장과 교실, 시청각실 등 다양한 공간을 녹지로 조성하

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ESG 참여 의지가 있는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건물 공간별 녹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청년 300명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돼 지난달 25일부터 서울의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10개 팀을 구성해 5개 분야(기후·에너지·생태·제로웨이스트·환경 및 건강·환경교육)의 환경 문제에 대해 한달간 속의 과정을 거쳐 시에 제안할 의제를 만들었다.

청년들은 정책 학습과 두 차례 워크숍을 거쳐 제안서를 작성했다. 이후 심도

있는 속의 과정을 위해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들이 분야별 멘토 위원으로 참여했다. 투표 결과에 따라 1-5위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우수 아이디어는 서울시 정책으로 추진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행사장이 청년들의 열기로 불이 날 것 같다”며 “제가 30대 때는 환경·시민운동에 매진해 환경변호사로 불리던 때가 있었다”며 “여러분과 함께 서울을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모범 도시로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김채빈 수습기자 chaebi@

강남구, 300억 규모 ‘창업펀드 2호’ 조성

서울 강남구가 300억 원 규모의 ‘강남창업펀드 2호’를 조성해 8월 본격 투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지난 3월 강남창업펀드 2호 조성을 위한 업무집행조합원을 공개 모집해 비에이파트너스를 운용사로 선발했다. 펀드는 당초 목표액인 200억 원보다 100억 원이 더 많은 300억 원 규모로 조성됐다.

비에이파트너스는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발맞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에너지·헬스케어·ESG·로봇분야의 청년창업 기업에 투자한다. 출자금 10억 원의 90% 이상을 강남구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의무 투자, 유니콘 기업을 꿈꾸는 창업가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김채빈 수습기자 chaebi@

dexcom G6

고혈당을 실시간으로, 저혈당을 사전에 알려주는 연속혈당측정시스템 덱스콤 G6

- ✔ 고혈당, 저혈당 알림과 경고!
- ✔ 손가락채혈(BG)을 통한 보정이 필수적이지 않음
- ✔ 혈당값을 5분마다, 하루 288번 스마트장치로 전송
- ✔ 최대 5명까지 연속 당수치 공유 가능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실구매가 100% 지원

개인용체내연속혈당측정시스템/24개월 이상의 당뇨병 환자의 피부 표면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세포 간질액에서 측정된 포도당 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포도당 농도를 모니터링하는 장치로 자가검사용으로 집에서 사용하거나 의료기관 내 당뇨병 환자의 포도당 농도 측정 결과 수집을 위해 사용한다.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12021-010-18-0031 (유효기간 24.11.12)

N 덱스콤 G6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퇴직교사 멘토 박현희

취약계층 초등학생 느린 학습자대상 1:1
읽기, 쓰기, 셈하기 학습 멘토링 지원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멘토 김보훈

취약계층 대학생 대상 1:1
경제 교육 및 금융지식, 코딩, 진로, 취업 멘토링 지원

누구나 '멘토'라는
또 하나의 '가족'을
만날 수 있게

1:1 멘토링으로
복지사각지대 청소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같이에듀 프로그램



행복과 성장의 플랫폼
청소년그루터기재단

대학생 멘토 김도연

취약계층 중/고등학생 대상 1:1
국어, 영어, 수학 학습 멘토링 지원

“남은 임기 2년 ‘원전·반도체’ 두 화두에 집중”

‘이공계 전문가 출신’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野 고준위 방폐법 독소조항...尹정부 기조에 맞게 준비 중 반도체특위 與 간사로 야당 협력 필수, 소통·협치 이끌 것

오전 6시 30분. 국회의사당 헬스장엔 여야 의원들이 몰려든다. 김영식(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헬스장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이곳에서 야당 의원들과 만나 속을 터놓고 얘기한다.

운동을 마친 후 김 의원은 의원실로 출근한다. 최근 김 의원은 준비 중인 법안은 물론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간사 역할을 맡아 정신이 없다. 국회에서 찾기 힘든 이공계열 전문가로서 김 의원은 당의 중추적인 역할을 도맡았다. 21대 국회 전반기 동안 김 의원은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전) 국회 포럼 공동위원장, 탈원전 피해 및 국토과과대책 특별위원회 등을 맡아 바쁜 하루를 보냈다.

김 의원이 새벽부터 바쁘게 하루를 보냈던 이유는 ‘원전 정상화’ 때문이다. 금융공과대학교 총장을 지냈고, 관련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했기에 김 의원은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살리는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을 핵심과제로 내건 만큼 김 의원 같은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최근에는 국정과제에 담긴 사용후핵연

료 특별 법안을 준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따로 있지만, 탈원전을 바탕으로 했기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26일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만나 “올해 초부터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야당에서 발의한 법안은 기본적으로 탈원전 기조를 담았지만 몇 가지 독소조항이 있어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새로운 특별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제가 만들려는 특별법안은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정의와 저장, 운반, 처리, 처분 등 전 과정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로드맵”이라며 “최대 현안인 저장시설 적기 확보와 처분 부지 마련, 동시에 처리 등 미래를 위한 기술개발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 후엔 이장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만나 법안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고준위 방폐법 외에도 원전의 계속 운영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감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해외 주요국은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을 대통령 직속 또는 관계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상임위원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비상입체제로 효율성과 전문성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해 원전 인허가의 차질, 행정 낭비, 불필요한 논쟁을 초래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원자력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주민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원자력 외에도 김 의원은 자신의 핵심

전공 분야인 반도체에 몰두 중이다. 국내 반도체 인제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국제 공급망 환경도 좋지 않은 상태라 국회에서 역할이 중요해진 상태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간사로서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그는 “최근에는 미중 패권경쟁으로 중국으로 인제 유출이 줄어들어 인력 문제는 안정화됐다”면서도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대책과 그 과정에서 연구자들의 선택권이 과도하게 침해받지 않는지 등 국회에서 쟁길 부분이 있는지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내에 전문가가 늘어나길 희망한다. 원자력이나 반도체 등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국회에 전문가가 필요하다. 전문성 없이 그냥 하면 국가가 어디로 가겠는가”라며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이나 목소리를 가지고 움직인다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남은 임기 2년 동안 김 의원은 원전 생태계 복원과 반도체 산업 육성에 계속 힘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야당의 협력은 꼭 필요하다. 헬스장을 활용해 소통하던 김 의원에겐 협치는 어렵지 않은 문제다. “해외에 갔을 때 밤늦게까지 야당 의원들이랑 원자력에 대해 소통했다. 그분들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 많이 만나고 소통하겠다.”

세종=박준상 기자 jooon@ 사진 신태현 기자 holjik@

한국BMS계약, 이해영 신임 대표

한국BMS계약은 신임 대표로 이해영 대표를 8월 10일부터 선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까지 비아트리스코리아대표직을 지냈으며 20년 이상 헬스케어 업계에서 경력을 쌓아온 전문가다. 서울대 약학대학 졸업 후 고려대 MBA를 취득하고 화이자에서 20여년 동안 한국화이자대표, 화이자 싱가포르 대표, APAC 지역 심혈관 치료 분야 총괄을 포함해 마케팅, 전략기획, 사업 개발, 임상 연구 등의 부서를 거쳤다. 2017년 5월 한국화이자 부사장에 임명돼 한국으로 복귀했으며, 2020년 11월 비아트리스코리아 대표로 선임됐다.

유혜은 기자 euna@

인사

◆금융결제원 ◇신임 부사장 △고객금융부장 최대원 △e사업전산실장 성재경 △감사실장 장인수 ◇신임 부서소속실장 △리스크관리실장 김호철 △비서실장 김준문 △인증시스템실장 김원기 ◇신임 팀장 △총무부 하정석 △기업금융부 박지현 △금융정보보호부 백미연 △디지털금융부 김정은 △금융인증센터 박태원 △플랫폼 개발부 김희경 △카드인프라사업 전희갑 ◇1급(부장) △고객금융부장 최대원 △금융정보보호부장 오명석 △청산관리실장 최석민 ◇2급(수석부부장) △경영기획부 유영구 △금융결제연구소 김성중 △고객금융부 이경재 △e사업전산실 류혜선 △총무부소속 최재영

◆하나증권 ◇부사장 선임 △구조화금융2실장 황세운 △대체투자1실장 김연준 △투자금융1실장 윤제희 △투자금융3실장 성지빈 △자금융팀장 김동식 △투자심사팀장 박성준 △연금사업팀장 김민태 ◇부사장 전보 △압구정금융센터장 김용수 △돈암동 지점장 김광일 △올림픽WM센터장 김정현 △프라임케어팀장 문경식 △노원 지점장 정금주 △서면금융센터장 전훈정 △영입부금융센터장 조대현

◆한국일보 △디지털전략팀장 김민성
◆아시아투데이 △편집국 사회부장 강주남

부음

▲윤성용 씨 별세, 윤혜선 씨 부친상, 김윤호(SK플라즈마 대표이사) 씨 장인상 = 25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7일 오전 11시, 02-3010-2000

▲도동애 씨 별세, 최중수(경남도청 소통기획관실 주무관) 씨 모친상 = 26일, 창원 파티마병원 장례식장 VVIP실, 발인 28일 오전 7시 30분, 055-270-1900

▲홍병렬 씨 별세, 박정순 씨 배우자상, 홍행기(서울신문광주본부장)·진기·현주씨 부친상, 노진자·김진아 씨 시부상, 윤상균 씨 장인상 = 26일, VIP장례터온 VVIP 101호, 발인 28일 오전 9시, 062-521-4444

▲김성기(전 MBC기술위원) 씨 별세, 조병진 씨 남편상, 김종용(에너지경제연구원 명예연구위원)·경희·종선(㈜브이엑스 대표)·경아(YTN 글로벌센터장) 씨 부친상, 민경희(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획지원본부장) 씨 시부상, 심병용(전 여의도여고 교사)·정용관(동아일보 논설위원) 씨 장인상 = 26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 발인 28일 오전 5시, 장지 국립서울현충원, 02-3010-2000

▲설용정 씨 별세, 설한솔(아시아경제 IT개발부장) 씨 부친상 = 26일, 경북 포항의료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8일 오전 8시 30분, 054-245-0444

재난이 닥치면...비행기 테러 통해 보여준 공동체의 균열

코로나19로 오랫동안 관객과의 만남을 보류해왔던 '비상선언'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비행기 테러를 소재로 사회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완성도 높은 재난 드라마다.

25일 오후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비상선언' 언론시사회에 참석한 한재림 감독은 “재난 자체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더 많은 함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면서 “사소한 인간성에 집중하면 재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작품의 의미를 전했다. 이날 자리에는 주연배우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임시완, 김남길, 김소진, 박해준이 함께했다.

'비상선언'은 생화학테러 무기를 소지한 테러범(임시완)이 비행기에 탑승한 후, 폐쇄된 공간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된 승객(이병헌)과 기장(김남길), 승무원(김소진) 등 생각과 입장이 모두 다른 다수의 사람들이 살길을 모색해나가는 과정을 다룬다.

비행기 이륙까지의 혼란한 대처 속에서 드러나는 경찰(송강호), 국토부장관(전도연), 청와대와 시민사회 등의 이견과 사회적 갈등을 정밀하게 다뤄낸 드라

마로 공동체의 재난을 바라보는 감독의 분명한 시선이 드러나는 작품이기도 하다. 2021년 7월 열린 제74회 칸영화제 비경쟁부문에 초청된 이후 코로나19로 두 차례 국내 개봉을 미룬 뒤, 이날 드디어 언론에 첫선을 보였다.

한 감독은 “(영화화에 영감을 줬던) 라스베이거스 총기 사건에 빗대어본다면, 문제는 총기로 사람들을 죽이고 (테러범이) 자살을 한 그다음부터다. 그런 상황이 한국 사회에 도달했을 때, ‘그 이후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 또 “재난이 닥치면 인간은 두렵고, 나약해지고, 남을 비난하고 원망한다.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인간이기에 좀 더 이성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가족이 탄 비행기를 구하기 위해 지상에서 분투하는 경찰 역을 맡은 송강호는 “한 감독이 재난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하려 하는지를 보니 참 어른스러웠다. 기교나 말초적인 표현을 통한 자극적인 전달보다는 묵직한”고 했다. 또 “평소에는 알고 있지만 잘 느끼지 못하는 사회 공동체나 이웃에 대한 생각들을 차근차근 보여준다는 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비상선언' 언론시사회에서 한재림 감독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해준, 임시완, 김남길, 전도연, 한 사람 건너 송강호, 이병헌, 김소진.

비상선언'은 비행기의 격정적인 흔들림

이나 360도 회전, 추락 등 재난 장르 영화로서의 스펙터클도 놓치지 않고 극대화한다. 한 감독은 “세트 안의 배우들이 비행기의 회전이나 격동을 실제로 느끼는 장면을 담으면 어떻게 생각해 수많은 테스트 끝에 큰 비행기(세트)를 직접 돌리는 장면을 촬영했다. 촬영 감독님 두 분이 승객들의 표정을 담기 위해 실제로 탑승해 (의자에) 몸을 묶고 장비를 장착한 뒤 핸드헬드로 찍었기 때문에 배우들의 긴장감이 잘 나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비상선언'은 27일 개봉한다.

박욱 기자 pgot@

조폐공사 'CEO 초이스'에 오창걸 품질관리부 차장

20년 요판인쇄 전문가로 은행권 용지 품질등급제 고안

조폐공사는 반장식(사진 오른쪽) 사장이 지난주 화폐본부장을 직접 방문해 ‘은행권 용지 품질 등급제’로 은행권 품질 향상에 공을 세운 오창걸(왼쪽) 인쇄처 품질관리부 차장을 격려하고 포상행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CEO 초이스’는 조폐공사가 임직원들의 혁신마인드를 장려하기 위해 주인공들을 발굴해 반장식 사장이 직접 현장을 찾

아가 포상하는 제도다.

조폐공사의 오랜 고민은 손율 개선을 통한 완벽한 은행권 품질 확보이다. 은행권 제조 과정에서 제지 건조 조건에 따라 인쇄 시 이물질이 발생하고, 용지의 균일성 등 작업조건에 따라 용지 신장·신축 문제가 발생한다.

오 차장은 인쇄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용지 품질 항목을 선정하고 데이터를 수집



해 분석했다. 오 차장은 4M 즉 자재(Material), 사람(Man), 기계(Machine), 방법(Method) 관점에서 품질에 미치는

변수들을 관리하기 위한 품질 등급제를 고안해 냈다.

오창걸 차장은 경북공고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1991년 공사에 입사 인쇄, 품질 현장에서 전뎀가 굵은 현장 전문가다. 특히 기계보조 역할로 시작해서 요판인쇄 기계를 다루기까지 20년의 시간을 요판인쇄기와 함께한 요판인쇄의 베테랑이다. 고졸 출신인 오 차장은 낮에는 업무, 밤에는 학업을 이어가는 주경야독을 10여 년 이상 했다. 이런 노력으로 한밭대 기계공학 학사, 한양대 기계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송영록 기자 syr@

중국을 지금



최 의 현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함반토타 사업의 실패로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스리랑카 정부는 항구 운영권을 중국에 넘기고 말았다. 혹자는 이를 부채함정(debt trap)이라고 부르면서 중국의 의도성을 의심한다. 스리랑카와 같은 개도국은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세계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국제기관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에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스리랑카의 독재자가 자신이 원하는 사업을 하려면 위험 프리미엄을 감수해야 한다.

인도양의 섬나라 스리랑카가 지난 5월 19일 국가부도를 선언한 데 이어, 7월 13일에는 라자팍사 대통령이 성난 군중을 피해 해외로 도피했다. 15년 이상 지속된 라자팍사 가문의 족벌통치가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라자팍사 대통령은 사임계를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한다. 그가 황급히 떠난 비행장 활주로에서 현금 봉치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야반도주한 아프간 전 대통령 사례에서 보듯이 부패에 찌든 가난한 나라의 통치자들은 대개 빈손으로 도망치지 않았고, 그들을 쫓아낸다고 해서 그 나라 국민의 삶이 당장 나아지지도 않았다. 스리랑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000달러를 조금 넘는,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수준의 개발도상국이다. 세계적인 흥차의 산지이고, 섬유업도 유명하고, 인도양이라는 매력적인 관광 아이템도 있다. 흔히 스리랑카 경제위기의 원인을 2019년에 발생한 부활절 테러와 코로나로 인한 관광산업의 침체에서 찾는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내전과 독재로 상징되는 정치적 불안정성과 이로 인한 경제 내 혁신성의 결여에 있다. 라자팍사 대통령은

2009년 중국 자본의 힘을 빌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남부 함반토타에 대대적인 인프라 건설을 시도했고 이 사업은 빚만 남긴 채 실패로 끝났다. 함반토타 항구 건설사업은 중국의 대표적인 일대일로 사업으로 꼽힌다.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미국과의 경쟁 속에서 주변국에 경제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중요한 이유로 자국 내 건설자산 활용을 지적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은 중서부 낙후 지역의 개발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사람보다 양떼가 더 많이 보이는 지역에도 고속철이 깔리고, 깊은 산속 소수민족 마을까지도 웅장한 다리가 놓이게 되었다. 중국 땅에서 대규모 공사를 벌일 기회가 줄어들자 남은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렸다. 그런데 해외투자 방식이 중국 땅에서 했던 것과 똑같았다. 정부의 정책금융을 활용해 중국기업의 자본과 중국인 노동자가 투입되었다. 심지어 중국인 노동자가 먹을 식자재까지도 본국에서 조달했다. 중국이 모든 것을 맡아서 하니 일대일로 대상 국가에는 딱고물도 떨어지지 않는다. 함반토타 사업의 실패로 빚을 갚지 못

게 된 스리랑카 정부는 항구 운영권을 중국에 넘기고 말았다. 혹자는 이를 부채함정(debt trap)이라고 부르면서 중국의 의도성을 의심한다. 스리랑카와 같은 개도국은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세계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국제기관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에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스리랑카의 독재자가 자신이 원하는 사업을 하려면 위험 프리미엄을 감수해야 한다. 중국 역시 수익성이 의심되는 사업이기에 확실한 담보를 요구한 것이지 스리랑카에 무슨 압력을 가해 강제로 돈을 빌리게 한 것은 아니다.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스리랑카에 빌려준 돈은 전체 외채의 10% 수준으로 일본, 인도의 채권 규모와 비슷하고,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세계은행보다는 그 규모가 작다고 한다. 그래서 중국은 스리랑카 위기는 일대일로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항변한다. 부채 재조정 협상에서는 자신들도 피해자라며 채권 규모가 큰 국제기구가 먼저 해결에 나서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중국 정책은행이 일대일로 사업 등을 이유로 스리랑카에 빌려준 돈을 포함하면 스리랑카의 대중국 채무가 전체 외채의 20%를 넘는다고 여러 기관(스리랑카

민간연구소인 프론티어리서치, 미 의회 산하 평화연구소, VOA 등)에서 분석한다. 이 추산대로면 중국이 가장 큰 채권국이다. 게다가 중국은 2015년 대선 기간 집권당에 760만 달러를 직접 지원했다는 강한 의심도 받고 있다. 대중국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방 국가들의 반중 감정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청년세대의 반중 정서가 상대적으로 심했다. 스리랑카 사태를 정리해 보면 중국이 적어도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끼친 것이 확실해 보이지만, 가장 큰 책임은 당사국과 그 국민이 질 수밖에 없다. 뉴스에서 치솟는 물가 속에서 직장을 잃은 스리랑카 사람들이 중국에 분노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중국을 싫어하는 이들에게 이런 뉴스가 잠시 잠깐의 쾌감을 주는지 모른다.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는 경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정신승리는 청나라 말기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 속의 '아Q'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중국을 이웃으로 둔 우리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중국을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마감 후



송 병 기
유통바이오부 부장

유병인구 2만 명 이하 혹은 알 수 없는 질환을 일반적으로 '희귀질환'으로 정의한다. 의학계에 따르면 국내 희귀질환은 7000개 이상이다.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과 소망'은 한 가지다. '희귀질환 치료 접근성 강화'다. 많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은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끊임없이 호소한다. 대표적인 것이 치료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다. 희귀질환 치료 신약의 경우가 가격이 비싸 오롯이 환자와 가족들이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가 치료 비용을 책임지는 건강보험 급여화, 환자들에게 더 많은 치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약의 가치는 절대적입니다. 신약으로

치료 받지 못하면 더 이상 수술이 불가능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끌어안고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도 새 정부가 추진하는 바와 같이 '함께 행복하게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길 바랍니다." 신경섬유종 환아 부모의 간절한 소망이다. 유전선혈관부종을 앓고 있는 한 환우는 "이번 정부 국정 과제에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 목표가 있는 것으로 안다. 계획에 그치지 말고 보험 적용이 절실히 필요한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부탁드린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좋은 소식도 있었다. 생후 8개월에서 16개월 사이 발생하는 희귀질환 '척수성 근 위축증' 치료 신약 졸젠스마에 대해 정부가 이달 20일 건강보험 급여를 결정했다. 20억 원에 달하는 고가 약이지만 한 번 투

약으로 평생 치료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의학계에 따르면 투약 대상군은 약 15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조기 진단으로 질환을 발견하고 치료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희귀질환도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특히 소아 희귀질환의 경우 질환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는 필수다. 따라서 환자와 가족들은 소아 희귀질환 진단율을 높여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주도의 조기 유전진단 시스템 구축과 유전상담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한국희귀질환재단 주최로 열린 '유전상담 서비스' 심포지엄에서 한 보호자는 "희귀질환을 진단받는 순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치료가 어렵다는 것에 대한 좌절과 절망 등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기 힘들

다. 유전상담은 질환과 치료에 대한 정확하고 전문적인 정보 제공, 심리적·정서적 지지로 환자와 가족에게 일상의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준다"며 유전상담이 의료서비스로 제도화되기를 희망했다. 근육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둔 부모는 "유전상담을 사후가 아닌 예방적 의료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적용해 희귀질환자들도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곧 될거야"라는 희망으로만 버틸 수는 없죠. 희귀질환 환자들에게는 내일이 아닌 오늘이 중요합니다." 수 년전 만났던 한 희귀질환 환우의 말이다.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은 오늘 지금, 고통을 잊고 아픔 없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들의 희망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기를 소망한다. songbk@

이투데이, 말투데이

☆ 노먼 어거스틴 명언
"어떤 일의 마지막 남은 10%가 전체 문제의 3분의 2를 만들어낸다."
록히드마틴 코퍼레이션의 회장 겸 CEO를 지낸 미국의 항공우주 사업가다. 미국 '인간 우주 비행 계획 검토 위원회'의 의장인 그는 34개의 명예 학위를 가지고 있고, 미국 의회도서관의 '50명의 위대한 미국인'에 선정되었다. 130개 나라를 여행한 그는 지구의 북극과 남극에 모두 섰다. 오늘날은 그의 생일. 1935~
☆ 고사성어 / 성동격서(聲東擊西)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적을 친다'라는 말. 동쪽을 치는 듯이 하면서 실제로는 서쪽을 치는 방법의 하나다. 한(漢)나라 유방(劉邦)과 초(楚)나라 항우(項羽)가 대치 중일 때 항우에게 항복한 위(魏)왕 표(豹)는 한나라 군대가 강을 건너오지 못하게 진을 쳤다. 한나라 한신(韓信)은 병사들에게 낮에는 큰 소리로 혼연하도록 하고, 밤에는 불을 밝혀 공격하는 것처럼 했다. 이러한 한나라 군대의 작전을 본 위왕 표는 어리석다며 비웃었다. 한신은 비밀리에 군대를 이끌고 뗏목으로 도강해 그를 생포했다. 출전 통전(通典).

기자수첩



이 동 옥 / 부동산부

김포 장릉 인근에 건설돼 '왕릉뷰' 논란을 일으킨 아파트 단지들이 차례로 입주 절차를 밟고 있다. 두 달째 이어진 입주행렬에 입주민들의 격정도 한결 가벼워지고 있다. 문화재청이 법원 판결에 항소하는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지만,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철거는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다만 이번 사태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단 '왕릉뷰 아파트' 입주를 보며

개발방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기자는 최근 집들이가 한창인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왕릉뷰 아파트를 직접 찾아갔다. 이삿짐센터, 전자제품 배달 차량이 아파트 곳곳에 세워졌고, 입주지원센터에는 입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입주민들은 법정 다툼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흥분하라는 표정이었다.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다.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현왕후가 잠들어 있다. 앞서 문화재청이 김포 장릉

인근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가 허가 없이 지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난해 7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사실상 '일부 철거'를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나머지 2곳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모든 공사가 재개됐고, 5월 말부터 공사가 완료된 곳부터 차례대로 입주 절차를 밟고 있다. 입주 절차가 정상화됐다고 하지만 이들이 겪은 정신적·물리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집들이가 한창이지만 입주민들의 표정

이 밝지만은 않았다. 입주지원센터에서 만난 입주민 A 씨는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까 봐 불면증에 약까지 먹었던 게 엊그제 같다"며 "입주자 사전점검 때도 온전히 입주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소연했다. 사업의 첫 단추를 잘못 채운 건 자명한 사실이지만 다시 끼울 기회도 분명 있었다. 문화재청의 허술한 관리·감독과 인천 서구청의 안일한 판단으로 이 아파트가 착공된 지 2년이 지나서야 이 사태를 파악했다고 한다. 결국, 대법원 판단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겠지만,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toto@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다

“여러분들이 자세를 조금만 조정한다면 훨씬 더 나은 인생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하버드 심리학자 에이미 커디는 2012년 ‘파워 포즈’(power posing) 이론을 주장하는 TED(Technology·Entertainment·Design) 강연으로 유명세를 치렀다. TED 강연은 일종의 재능 기부이자 지식·경험 공유 체계다. 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모든 지적 호기심을 함께 충족하는 게 목표다.

커디는 채용 면접과 같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 들어가기 직전, 개방적이고 넓은 자세로 서 있을 수 있는 화장실 같은 개인적인 장소에서 2분 정도 파워 포즈를 취하라고 권했다. 실험을 해보니 예를 들어 다리를 벌리고 엉덩이에 손을 얹고 있는 자세를 취하면 심리적, 호르몬적 자극을 준다고 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아진 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감소했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영국의 심리학자 스튜어트 리치의 저서 ‘사이언스 픽션’에 따르면 한때 유튜브 TED 강의 중 2위를 차지했던 커디의 주장은 진실이 아니었다. 2015년 다른 과학자 그룹에서 파워 포즈 효과 반복 재현 실험을 진행했는데 테스토스테론, 코르티솔 등 호르몬 변화와 베타 게임에서 더 큰 재정적 위험을 감수하는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과학적 진실은 재현이 되어 한다는 것이 절대 조건이다. 결국, 이 논문의 제1저

데스크칼럼

박성호

부국장 겸 금융부장



자인 버클리대학의 에이나 카니는 2016년 파워 포즈에 대한 그녀의 견해가 달라졌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파워 포즈 효과는 진짜가 아니라고 고백한 것이다

수년 동안 면접에 앞서 화장실 거울 앞에서 당당한 포즈를 취하며 자신감을 얻으려 했던 수많은 구직자는 일종의 ‘사기’ 피해자로 전락하게 됐다.

과장되거나 왜곡된, 또는 거짓 지식으로 흑세무민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 왜곡된 개념의 예를 든다면 ‘아메리칸 드림’이 대표적이다.

역사가 제임스 트러슬로 애덤스가 1931년 출간한 ‘미국의 서사시’에 이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흔히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면 단순히 고급 차를 몰고, 비싼 주택에 살 수 있는 경제적 조건 성취로 생각한다.

하지만 실상이 단어는 모든 사람이 타고난 능력과 노력에 맞는 합당한 위상에 오르고 신분 고하나 지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진 본인의 능력만으로 인정을 받는 것을 의미했다. 시대의 흐름 속에 ‘부의 축적’으로 변질된 아메리칸 드림 개념이

진실로 받아들여진 셈이다.

왜 우리는 스스로 왜곡이나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걸까. 세상은 늘 불확실하고 불분명하며 현재도 절대 진실이 없는 상황에서 움직이는데, 우리는 언제 나 뚜렷하고 분명하게 세상의 범주를 나누고 그에 맞춰 살려고 해서다.

전 세계적으로 통화 긴축 시대가 도래했다. 저금리 시대에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봤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상수였지만 발생 가능성이 낮은 변수라고 맹목적으로 믿었다. 비트코인은 지금이 제일 싸다고 착각했으며 아파트 가격과 주가는 내리는 날을 비정상적으로 봤다. 그런데 어느 순간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거인의 발걸음처럼 섬섬섬름 내디디고 배럴당 20달러대였던 국제유가는 100달러를 넘나든다. 주가는 매가리 없이 추세적 하락세를 보이고 원화와 가상자산은 ‘오늘이 제일 비싸다’라는 인식으로 180도 바뀌었다.

결과를 확정해 놓고 미래의 진실을 찾는 것은 헛행그림할 뿐이다. 미래는 진실을 찾는 합리적이고 합당한 과정에서 결정된다. 역사에서 풀림은 늘 부작용을 낳았다. 최근 나오는 당국의 금융경제 대책이 다소 과격해 보여서 우려된다. 단기적이고 비구조적인 대책은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당장 달콤하지만 쓰디쓴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점을 당국자들이 유념해 주길 바랄 뿐이다.

vicman1203@

시설

2분기 0.7% 성장, 먹구름 더 짙은 하반기 경제

올해 2분기(4~6월)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보다 0.7% 증가했다. 1분기 성장률(0.6%)보다 0.1%포인트(p) 높아진 것으로,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에 힘입었다.

한국은행은 26일 이같은 2분기 GDP 성장률(속보치)을 발표했다. 민간소비가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3.0% 늘어 성장을 떠받쳤다. 반면 설비투자는 1.0% 감소했다. 또 1분기 3.6% 늘었던 수출이 3.1%나 줄었다. 이에 따라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는 1분기 -0.2%p에서 2분기 1.4%p로 높아졌고, 순수출은 1.7%p에서 -1.1%p의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1.8% 성장했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2%), 운수업(9.8%), 문화 및 기타(9.0%)가 많이 늘었다. 농림어업(-6.4%), 제조업(-1.1%), 전기가스·수도업(-0.5%)은 하락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2.7%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하반기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계속된 물가 오름세에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코로나19도 다시 급속도로 확산하는 국면이다. 민간소비와 서비스업 위축이 불가피하다. 성장률이 뒷걸음질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 감소세가 심각하다. 갈수록 수출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다. 수입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교역조건은 악화일로다. 4월부터 무역 적자가 쌓여 상반기 마이너스 103억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7월 들어 20일까지 적지만 81억 달러로 나타났다. 공급망 교란, 중국의 경기 둔화, 미국 등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한 금리 인상과 긴축 가속화 등 중첩된 리스크가 수출과 경기의 하방 위험을 높인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날 내놓은 세계 경제 수정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3%로 제시했다. 지난 4월 종전의 3.0%에서 2.5%로 낮추고, 이번엔 또 전망치를 0.2%p 더 하향조정했다. 한은의 예측보다 훨씬 부정적으로, 소비와 수출 부진의 충격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 급등이 이어지는 상황에 경기 후퇴가 구조화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악순환 우려 또한 갈수록 커진다. 비상한 경기대응이 절실한데, 대외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뾰족한 방도를 찾기 어렵다. 임기응변의 단기 대책도 마땅치 않은 현실이고 보면, 긴 호흡의 정경법(正政法)밖에 길이 없다. 민간의 경제활력을 살려 수출과 투자, 소비를 진작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법인세 인하, 기업규제 혁파, 노동시장 개혁, 산업구조 개편 등에 집중해야 할 이유다.

마음상담소 남사친·여사친 그리고 장애사람 친구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장안의 화제다. 자폐스펙트럼이란 장애를 가졌지만 변호사로서 일반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우영우라는 인물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한 매력적인 캐릭터다. TV를 유심히 보다보니 또 다른 발달장애인이 눈에 들어왔다. ‘징크스의 연인’에 나오는 영우네 밥집의 아들 장영우이다. 그 역시 자폐스펙트럼이다. 물론 시청률에 따라, 또 캐릭터에 따라 인지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지만, 발달장애인 장영우를 알게 된 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우영우와 장영우, 두 인물 모두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발달장애인이지만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기억하는 것은 아마도 우영우 뿐일 것이다.

우영우와 장영우, 이 두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대하는 온도 차가 아닐까 싶다. 우리 사회에는 우영우 같은 장애인보다 장영우 같은 장애인이 훨씬 더 많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아직도 냉랭한 것이 현실이다. 지금은 캐나다로 이민을 간 발달장애 자녀를 둔 한 부모의 이야기다. 일반학교에 다니는 발달장애 자녀의 부모는 일주일에 한번은 학교의 부름을 받고 달려갔다고 한

다. 어떻게 해서든 일반학교에서 비장애인과 지내게 하고 싶었지만 학교 부적응과 학부모들의 거둬둔 항의로 전학이 아닌 자퇴를 결심하였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 이민을 선택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본 고민일 것이다. 발달장애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이다. 학교에서 비장애아가 소리 지르고 친구를 한 대 툭 때리는 것은 실수이지만, 장애아가 그러면 수업방해 행위이고 학교 부적응이고 폭력이다.

사회가 많이 변했다고는 하나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나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 장애인에 부족하고 불편한 존재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러한 인식만큼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받아들이고 더불어 사는 성숙한 사회인가 하는 부분에는 의구심이 든다. 장애인들이 부족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다. 우리 사회에는 우영우 같은 장애인보다 장영우 같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와 다르다고 기피하거나 이방인이나 다른 나라 사람 보듯 할 것이 아니라 남사친(남자사람 친구), 여사친(여자사람 친구)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현주 사회복지사

농식품 트리플헬릭스 혁신 - 빅데이터 기반 협업

국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과 관련하여 트리플 헬릭스(Triple Helix: 삼중 나선) 모형에 기반한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10여년 전부터 국내에서 본격화되었고, 이에 따른 혁신의 세 주체, 대학·정부·산업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트리플 헬릭스 모형은 마치 DNA의 나선 구조처럼 세 주체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진화가 국가와 지역의 혁신을 만들어 내는 지식 생산의 동력원이 된다는 이론이다. 기존의 국가 주도 연구개발(R&D) 정책의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트리플 헬릭스는 세 주체가 동등한 위치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대학은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과 R&D를 수행하여 산업에 제시하고, 산업은 혁신과 성장, 그리고 지역 고용을 창출하며, 정부는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제안한다. 이에 따라 대학의 모습이 변하고 있다.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 중심의 대학에서 연구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 중심의 대학으로, 나아가 국가와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요구에 부합하는 지식을 창출하는 기업가적 대학(Entrepreneurial university)으로 변모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산학협력과 지적재산권의 상업화, 인큐베이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와 산하 정부출연연구소도 트리플 헬릭스 기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혁신을 끌어내기 위해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정부 주도 산·학·관 협력의 최종 결과물이 보고서와 지식재산의 창출이었다면, 최근에는 제품화 및 산업화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개발이 늘고 있다. 더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농식품 분야에서도 이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의 농식품과 농

기고

문정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푸드비즈니스 교수



식품 생산 기반 및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보급을 총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기관이다. 1970년대에 통일벼 품종을 성공적으로 개발, 보급하고 우리 환경에 맞는 다양한 다수확 품종 작물로 국민들을 배고픔으로부터 해방시킨 중요한 역할을 했다. 최근 수입 흑돼지인 이베리코 돼지를 대체하는 프리미엄 토종 흑돼지 품종인 ‘난축맛돈’을 육종하여 상품화한 것도 농진청의 작품이다.

그러나 새로운 품종, 새로운 재배기술, 새로운 유통방식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했는데, 공급 중심의 경제에서 수요 중심의 경제로 변모해감에 있어 급변하는 소비자 시장에서의 요구를 캐치하기 어렵다는 점이였다. 그러니 새롭게 개발한 품종이나 기술, 이를 기반으로 한 제품이 시장에서의 요구와 맞지 않아 사장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진청에서는 20년 후를 내다보고 2010년 ‘소비자 빅데이터’ 구축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전국 1000가구의 3500여 소비자 패널을 대상으로 식료품 구매 영수증을 꾸준히 수집했다. 현재는 패널의 숫자를 보강하여 2282가구의 6200여 소비자로 확대 운영 중이며 품목, 브랜드, 가격, 구매처, 구매 시간 등의 정보까지 포함한 1200만 건이 넘는 식료품 구매 기록이 저장되어 있는 어마한 크기의 빅데이터를 지금도 계속

수집 중이다. 초기에는 농진청 내부에서도 굳이 이런 데이터를 비용을 들여 수집,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그러나 이 데이터가 10년 넘게 축적되니 시장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소중한 도구가 되고 있다. 예컨대 버섯 신제품 개발에 있어 전 연령대를 통틀어 표고버섯에 대한 구매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부들이 표고버섯을 볶음요리뿐만 아니라 국물을 내는 용도로 주로 활용한다는 것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찾아냈다. 더불어 표고버섯 외관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도출하여 이에 맞는 방향으로 신제품 개발을 준비 중이다.

작년에는 포도 신제품 개발에 있어 포도 구매에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고관여 소비자일수록 포도의 단맛만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맛이 나는 포도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것도 빅데이터 분석으로 찾아냈고, 이에 적합한 프리미엄 포도 육종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었다.

서울대와 농진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김장용 절임 배추를 구매하는 가구 수가 예전보다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찾아내고, 제조사와 유통업체로 하여금 절임배추 한 두 포기과 속 양념으로 구성된 1~2인 가구용 김장키트 개발을 제안했고, 관련 제품들이 출시되며 이 시장은 최근 수년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대학이나 기업에서 이런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은 어렵다. 정부기관이 나서야만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다. 이 기반을 대학이 활용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이 신제품으로 출시하며 소비자 만족과 함께 제품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트리플 헬릭스적 혁신 모델이 우리 농식품 분야에서 확산 중이다. 해외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다.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SAMSUNG

무풍 AIRDESIGN PROJECT
무풍에디디자인 프로젝트

사계절 내내, 공간에 맞춰
무풍으로 에어를 디자인하다

봄에는 살균청정 폭염에는 냉방 정미철에는 제습 살필까지 제습 살필까지 제습 살필까지

BESPOKE 무풍에어컨



자세한 제품 정보는
삼성닷컴에서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응원합니다

* 미국 냉공조학회(ASHRAE) 기준 Cool Draft가 아닌 0.15 m/s 이하의 바람을 무풍(Silent Air)으로 정미합니다. * 청정 기능 지원은 모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온풍 모드 지원은 일부 제품에 한정됩니다. * 실온 시뮬 세온: 대영권(Schneider) | 동남아시아: 스타일(Sophy) | 태평양: 오아시스(Oasis) | 북미: 스타일(Sophy) | 태평양: 오아시스(Oasis) | 북미: 스타일(Sophy) | 태평양: 오아시스(Oasis)

가전을 나답게.